13 그리스도인의 교리 13강

LESSONS IN CHRISTIAN DOCTRINE

DENVER SIZEMORE

그리스도인의 교리
13강

조 동 호 번역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THIRTEEN LESSONS
IN
CHRISTIAN DOCTRINE

Denver Sizemore

College Press Publishing Company, Joplin, Missouri

Dong Ho Cho, Trans.

Christian Church Studies, 2000, 2009
258-15 Umsary Umsamyun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머리말

Foreword

본서의 출판은 학생 전반에 의해서 그 진가가 인정되는 그리스도인의 교리(Christian Doctrine)를 효과적이고 진솔하게 제시한다. 초기 형태에 담긴 이들 개요들을 새 신자 육성에 크게 유용하게 사용해왔기 때문에, 본인은 좀더 상세하게 다듬어 쓴 이 책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이즈모어 교수는 수년에 걸친 연구와 강의내용을 간추려서 간결하지만 조리 있고 이해하기 쉬운 책으로 엮었다. 그의 설명들, 실례들, 그리고 인쇄된 본문들은 문맥의 명료함을 높이고 그리스도인의 교리 공부를 좀더 즐겁게 만든다. 본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피차 유익할 것이다.

행정과장 라곤 T. 플랜너리(Ragon T. Flannery)
그리스도의 교회 건물과 융자기금 주식회사
남부 캘리포니아 복음주의 협의회

차·례

머리말 ····· 3
제1강 하나님 ····· 7
제2강 예수 그리스도 ····· 19
제3강 성경 ····· 33
제4강 교회 ····· 45
제5강 믿음 ····· 55
제6강 회개 ····· 67
제7강 침례 ····· 79
제8강 주의 만찬 ····· 91
제9강 기도 ····· 105
제10강 드림 ····· 119
제11강 신약성경에서의 드림 ····· 133
제12강 교회의 선교 ····· 147
제13강 주의 재림 ····· 161
참고도서 ····· 177
역자후기 ····· 181

제1강.

하나님

God

1.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A. 성경이 그것을 드러낸다.
   B. 이성이 그것을 가르친다.
   C. 최고지성이 그것을 일러준다.
   D. 자연이 그것을 입증한다.
   E. 직관이 그것을 요구한다.

2. 하나님에 관한 이름
3. 하나님의 특성
   A. 그분의 통일 - 한 분 하나님
   B. 그분의 거룩
   C. 그분의 사랑
   D. 그분의 자비
   E. 그분의 능력 - 전능
   F. 그분의 지혜 - 전지
   G. 그분의 무소부재
   H. 그분의 신실

4.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계시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분은 우리들을 돌보시는가? 그분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풀어야할 문제들이다. 이것들에 대한 답은 각자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할 것이다.

1.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A. 성경이 그것을 드러낸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는다. 첫 진술은 "태초에 하나님이..."(창 1:1)이다. 그 진술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의 사실로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시 14:1)고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사실들에 무지한 어리석은 자만이 하나님을 부정할 것이며, 그것도 비공개적으로 그의 마음에 은밀하게 한다고 기술한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막강해서 박식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기록된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는 성경을 수용하지 않을 자들에게 그분의 존재에 관한 추가된 입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몇 가지 증거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B. 이성이 그것을 가르친다.

인과의 법칙은 모든 결과 배후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세계는 결과이다. 무엇이 원인인가? 세계와 이 우주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는가?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그것 배후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탁월한 정신이 있는가? 이성은 후자를 가르친다. 성경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히 3:4)고 말한다.

C. 최고지성이 그것을 일러준다.

우리가 저택을 볼 때, 현명한 건축가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때, 작곡가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볼 때, 창조주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 지구는 대략

6,570,000,000,000,000,000,000톤(6 sextillion, 570 quintillion)의 무게를 갖고 있다고 한다. 지구의 크기는 지름이 대략 12,800킬로미터,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그 움직임들이 최고급의 정밀한 시계보다 더 정확하다. 지구는 태양을 돌 때, 일 년 주기로 952,000,000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시간은 일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 만약 0.5초만 차이가 생겨도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학뉴스가 될 것이다. 지구는 수천 년 간 이 일을 동일하게 해왔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이 가장 적절한 답이다.

D. 자연이 그것을 입증한다.

시편 기자는 선포하였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 19:1). 바울 또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부언하였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증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핑계치 못한다. 누군가가 이렇게 기록하였다. "만약 '하나님'이란 단어가 모든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에 기록되었고, 모든 흘러가는 구름에 돋을새김이 되어 있고, 모든 화강암에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세계 속에 계시다는 귀납적인 증거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강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지성이 그것의 전제로써 세상을 최종적인 말로 생각할 때에, 모든 삼단논법의 '그러므로'는 '하나님'일 것이다. 우주는 '하나님'이라고 적은 하나의 커다란 광고포스터이다."

E. 직관이 그것을 요구한다.

인간은 직관적으로 더 높은 존재를 인식하며 그것을 숭배하려는 욕망을 갖는다. 이것은 대부분의 이교부족들에 있어서 사실이다. 바울은 아테네의 이교신상의 숭배자들 사이에서 이것을 사실로 확인하

였다(행 17:23). 어디서 인간은 이 지식과 신적인 존재개념을 얻는가? 동물들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종교적 존재라는 사실은 설계자인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인간 속에 두셨다는 증거이다. 무신론자는 그것을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이 의심의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대양(大洋)을 가까스로 건너면서 그분을 거부하고 있다. 그것은 미노트 J. 사비지(Minot J. Savage)의 시구를 생각나게 한다.

> "아, 어디에 바다가 있는가?" 수정처럼 맑은 물속을 노닐면서 고기들은 외친다. "우리는 예로부터 대양의 조류에 대해서 들어왔다. 우리는 푸른 물결이 보고 싶다. 현자들은 무한한 바다에 대해서 말한다. 아, 누가 그와 같은 것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겠는가!"

2. 하나님에 관한 이름

구약성경에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Jehovah)이다. 이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self-existent one)이다.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된다. 답은 그분은 아무 곳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분은 그분 자신 속에 존재하시고 언제나 그러셨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무제한하다는 한 가지 표시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출 3:14). 이것은 여호와 즉 "존재하는 자"(the existing one)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분명한 암시이다(시 90:2).

"엘로힘"(ELOHIM)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장 1절과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에게 적용된다. 이 이름은 "강한 자"를 의미한다. 이것은 그분의 특성이 "전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특별히 창조와 관련해서 사용되어진다.

"주, 주님"을 의미하는 "아돈"(Adon)은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께

적용되어진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지배하는 그분의 권위를 지적한다.

3. 하나님의 특성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계시인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 무엇과 같은가를 말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의 많은 속성들 가운데 몇 가지를 열거하고자 한다.

A. 그분의 통일 -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신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미국표준개역 성경은 좀더 정확하게 그것을 번역하고 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 속에는 삼위(세 분)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이란 말은 이들 각각에 적용된다(고전 8:6; 요 1:1; 행 5:3-4). "하나님"이란 말은 여기에서 적절한 이름으로써 보다는 신성의 표현으로써 사용되어진다.

삼위(세 분) 한 분 하나님의 개념은 신약성경의 저자들을 혼란시킨 것 같지 않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였고, 유한한 인간으로는 무한한 하나님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어떤 점에서 인간도 하나님처럼 삼위일체이다. 바울은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기술한다(살전 5: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을 하나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만약 인간이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특성을 이해 못하는 것에 놀라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것들을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한다.

B. 그분의 거룩

이것은 한 분 참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신들 사이에 나타나는 가장 큰 구별들 가운데 한 가지이다. 인간이 만드는 신들은 악하고, 그것들을 만든 인간들처럼 약하다. 올림포스 산의 신들의 죄 많은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헬라신화를 공부해 보면, 이것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인간이 신을 만들 때를 생각해 보면, 그가 죄에 대한 벌로 그에게 저주 내릴 자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것이 여호와의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이 거룩치 못한 특성들의 이방 신들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 여호와는 시내산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신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 예언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사 6:3)라며, 서로 창화하는 스랍과 함께 계신 주의 환상을 보았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첫 기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 6:9)이다.

하나님이 죄 많고 악한 모든 것을 미워하게 하고, 정결하고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시 5:5)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거나 죄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이다(약 1:13).

흰 공단드레스를 입은 여성은 하수도청소부가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러움을 싫어한다. 사람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죄를 더더욱 싫어하게 된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향한 그분의 태도표명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과 불에 의한 지구의 최후멸망으로 나타난다.

신약성경에서 "성자"(saint)란 말은 "거룩한 자" 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한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성자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처럼 살아가도록 요청 받는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

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 1:14-16).

C. 그분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8). 사랑은 하나님의 특성을 기술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특성보다도 더 가까이 온다(사 63:7-9 비교). 사랑은 상실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비길 데 없는 모티브이다(요 3:16).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구하려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데서 처음 나타난다(요일 4:9-10). 그분의 사랑은 또한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에로 입양하는데서 보인다(요일 3:1). 그분의 사랑은 인간이 갖게 될 그 어떤 사랑보다 더 우월하다(롬 5:6-8).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섭리적인 모든 인간의 돌보심 특히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에서 본다(마 5:44-48; 롬 8:28).

우리들의 죄들에 대한 그분의 반복적인 용서는 그분의 사랑에서 나온다. 히스기야 왕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사 38:17).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위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낳게 하신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그분의 사랑은 또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 4:11; 요 14:15).

D. 그분의 자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의 기초이다. 바울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엡 2:4-7).

위대한 세 단어들, 즉 사랑, 자비, 은혜는 성경에서 긴밀하게 연관을 맺는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의 기초이고, 하나님은 그분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은혜(대가와 관계없는 호의)를 확대시키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가장 위대한 표명은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나타났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 4:10). 하나님은 우리들을 우리들의 죄 값으로 죽게 하실 수 있었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의로우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로 선택하셨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분의 자비를 매일 보여주신다. 우리가 아는 대제사장 예수와 은혜의 보좌는 언제나 우리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히 4:16).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가!

E. 그분의 능력 - 전능(全能)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전능한"이란 말은 그분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노래하기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고 하였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오늘까지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제한 없는 권능이다. 성경의 기적들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베풀어졌다. 사람들은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창세기의 창조이야기와 성경의 기적들을 믿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 19:26)고 말씀하셨다.

F. 그분의 지혜 - 전지(全知)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무제한이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시 147:5).

하나님의 지식은 커서 위대한 사실들은 물론이고 아주 작아서 중요치 않은 것들에까지 미친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참새가 떨어지는 것을 보시며,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신다(마 10:30). 요한은 적는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요일 3:20).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시 139:2-4).

G. 그분의 무소부재(無所不在)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다. 그분은 언제나 현존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렘 23:23-24). 다윗은 시편 139장 7-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미치지 않은 장소에 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이교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

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행 17:27-28).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全能)하시므로 권세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분의 전지(全知)는 그분의 지식이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의 무소부재(無所不在)는 그분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신 10:17).

H. 그분의 신실하심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신 7:9).

모든 삶의 분야의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아무 것도 안정적인 것은 없는 것 같다. 삶의 모든 것이 변동하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탐험가 험볼트(Humbolt)는 남미에서 겪은 지진에 대한 경험을 토로하였다. 자기 밑에 있는 지구가 물에 뜬 보트처럼 흔들리고, 나무들이 쓰러지고, 바위들이 뒹굴 때, 그는 아무 것도 안정적이고 의지할만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위를 쳐다보았다. 태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하늘은 어지럽지 않았다. 어떻게 그것이 삶의 문제와 같은가! 이 지구의 사물들은 진정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다윗은 말한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시 102:25-27).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불변, 즉 그분의 변치 않은 특성에 뿌리를 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말 3:6). 그분의 방법들과 인간들과 맺은 언약들은 변할지 몰라도, 그분의 원칙들과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신뢰를 그분이 맺은 모든 약속 가운에 둘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은 또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장한다. 인간들은 약

속들을 지키지 않을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하여 그것들을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기로 약속하시는 모든 것을 이행하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faithful),*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히 10:23).

4.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심사숙고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 9장 23-24절의 하나님의 말씀들에 동의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9:23-24).

인간의 삶의 가장 높은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다(전 12:13).

질문들 - 하나님

진위(眞僞) - OX문제

_____1.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_____2. 모든 결과에는 틀림없이 원인이 있다.

_____3. 자연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증거가 거의 없다.

_____4. 하나님이 언제나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다.

_____5.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성을 믿음으로 수용한다.

_____6. 인간은 성경을 읽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는다.

_____7. 무소부재는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음을 의미한다.

_____8. 불변은 하나님의 변역(變易)치 않은 특성을 말한다.

_____9. 인간이 만드는 신(神)들은 능력이 많고 거룩하다.

_____10. 신약성경은 모든 사람이 성자라고 가르친다.

빈칸 채우기

1.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_____과 _____이다.

2.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_____과 _____으로 보장된다.

3.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 안에서 _____과 _____을 위한 사랑을 낳아야한다.

4. 하나님의 _____은 대가와 관계없는 호의로 정의된다.

5. 하나님은 _____하시기 때문에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제2강:

예수 그리스도

Jesus, The Christ

1. 예수, 하나님의 아들
   A. 신적인 권능들과 영예들이 예수께 돌려졌다.

2. 예수의 사역과 직위를 나타내는 명칭들
   A. 예수, 우리들의 구세주
   B. 예수, 우리들의 주
   C. 예수, 우리들의 중보자
   D. 예수, 우리들의 예언자
   E. 예수, 우리들의 대제사장
   F. 예수, 우리들의 왕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 그래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사명에 관하여 알려준다. 예수는 히브리어 단어 "여호수아,"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에 해당되는 헬라어이다. 예수는 "구세주"를 의미하며,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적절하게 기술한다.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명칭은 "기름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를 구약성경에 실린 유대인들의 메시아 희망들의 성취자로 지명한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은 그분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지상에 내려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한다.

1.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어지는 논리적인 질문은 이 예수, 이 메시아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왔다. 몇몇 유대인들은 그분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였다(막 6:3; 마 13:55).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속이던 자"라고 불렀다(마 27:63).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라고 생각하였다(요 6:14).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단지 한 인간이라고 말한다. 그분은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분을 가장 잘 아는 사도들은 무엇을 말하였는가?

침례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요 1:34).

마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막 1:1).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갈 4:4).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눅 1:35).

귀신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마 8:29).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

르시되, 내가 그니라"(막 14:61-62; 비교: 마 26:64; 요 10:36).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아버지한테서** 왔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17; 비교: 마 17:5).

A. 신적인 권능들과 영예들이 예수께 돌려졌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위의 증거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로지 신(神)께만 속한 권능들과 영예들을 소유하셨다는 말을 들으셨다.

1) 그리스도는 창조권능을 갖고 계신다. 성경전체를 통해서 창조권능은 하나님께만 돌려지고 있다(창 1:1; 사 48:12-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구절들에서 동일한 권능이 예수께 돌려지고 있다(요 1:1-3; 엡 3:8-11; 골 1:16-17).

2) 그리스도는 죄 사함의 권능을 갖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타적인 권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5장 20-25절에서 예수는 그분이 죄 사함의 권능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표명하신다.

3) 그리스도는 합당한 숭배의 대상이시다. 하나님만이 홀로 예배받으시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예는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께 주어진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요 5:22-23).

이들 권능들과 영예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요 1:18) 때문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분은 결코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치 않으셨다. 그분은 결코 자신을 다름 사람들과 동격으로 분류치 않으셨고, 동등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는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에게 기도방법을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어서 제자들의 기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분은 세상에 오셨고, 짧은 기간 동안 인간으로 사셨다. 그러나 그분은 독특한 의미 즉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고, 항상 그렇게 존재해오셨다.

2. 예수의 사역과 직위를 나타내는 명칭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서로 다른 명칭들이 254개나 된다고 말하였다. 다이아몬드는 많은 단면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각각은 그 보석의 몇몇 새롭고 아름다운 측면을 반영할 것이다. 다이아몬드처럼, 사람은 예수를 어떤 각도나 그분의 삶의 단면에서 볼 것이고, 그분의 위대함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반영하는 어떤 새로운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 과에서 우리는 주님의 삶의 이들 많은 단면들의 몇 가지를 공부할 것이다.

A. 예수, 우리들의 구세주

웹스터 사전은 구세주를 "구조하거나 구출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예수의 삶의 이 측면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천사는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주의 천사가 유대지방 들녘의 목자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예수께서는 그분의 지상사역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로마서 5장 6-8절은 사람이 연약하여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동안 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는 그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진술한다. 베드로전서 1장 18-19절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값으로 되산바 되었으며, 노예 신분에서 구출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은이나 금으로 하지 않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프리카 선교사 윌리 R. 호치키스(Wille R. Hotchkiss)는 구세주 개념을 표현할 토착어를 수개월동안 찾았다. 어느 날 마을에 대소동이 있었다. 호치키스는 광장에 모여든 군중에 섞여있을 때, 그는 상처입고 피 흘리는 원주민을 발견하였다. 그는 호랑이의 발톱에서 벗어난 도주를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그를 구해준 사람을 설명할 한 단어를 사용하였다.

즉각적으로 호치키스는 이 단어를 받아 적었다. 다음 주 주일 그는 구세주 예수에 관하여 설교하였고,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설교 후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죄와 사단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수개월 동안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시도해왔던 것입니다."

호치키스는 말한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4년 동안 실제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나는 열병으로 30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사자들에게 3번 공격을 받았고, 코뿔소들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으며, 원주민들에게 수차례 매복습격을 받았습니다. 14개월 동안 나는 한 조각의 빵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구세주'라는 그 말을 다시 가져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중앙아프리카의 또 다른 부족을 덮고 있는 어둠 속에서 그것을 번쩍거리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그 모든 것을 다시 겪고자 합니다."

많은 거짓 종교들이 그들의 신도들에게 육체의 학대와 개인적인 고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제시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인 금언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 희망은 희미하다. 기독교의 위대한 확신은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 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딛 3:5-6).

기독교만이 홀로 구세주를 갖는다. 우리가 그것을 유일하게 *참* 종교라고 믿는 한 가지 이유이다.

B. 예수, 우리들의 주

어떤 말도 "주"라는 말보다 초기 신자들의 믿음을 더 잘 표현한 말은 없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행 2:36)가 되게 하셨다고 오순절 날 선포하였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베드로는 그분이 "만유의 주"이시라고 말한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롬 10:9) 입으로 시인해야한다고 선포한다. 신자는 예수를 그의 구세주로, 그의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그러나 특별히 그의 주로 고백한다. 빌립보서 2장 9-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설명한다.

주라는 말은 그분의 추종자들, 즉 교회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가리킨다(골 1:18). 그분은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종이다. 구세주란 말은 그리스도가 행하셨고,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주라는 말은 신자가 그의 구세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반영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읽기와 듣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아니시라면, 그분은 결코 우리들의 주가 아닐 것이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눅 6:46)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삶의 이 측면은 오늘날 강조될 필요가 있다.

C. 예수, 우리들의 중보자

중보자란 말은 양자 "사이를 오가는"(go-between) 사람을 말한다. 양자가 적대적이거나 또는 서로 사이가 나쁘다는 것, 그리고 이 중보자는 그들 사이에 일치와 합의를 이루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성경말씀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반목하고, 그분과 멀어져, 희망이 없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화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6).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커다란 장벽, 즉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께서 주시는 복음을 통한 용서를 수용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는 홀로 이 장벽을 제거할 자격을 갖추셨다. 그분만이 홀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다. 예수만이 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전 2:5)고 말한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신다.

중보자는 양자 모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각자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예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인간의 입장을 알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히 2:17-18; 4:15-16을 참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벽하고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D. 예수, 우리들의 예언자

예수의 사역은 넓은 범위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그분이 수행하시는 세 가지 직책들, 즉 예언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나뉜다.

구약성경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였다. 아모스는 그가 훈련에 의한 예언자였거나 예언자의 아들이 아니었으며,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암 7:14-16). 예언자들은 당대와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언자들(forthtellers)이었다. 그들은 또한 될 일들을 미리 말하는 예언자들(foretellers)이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 한 위대한 예언자에 대해서 어김없이 지적한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예고하였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 예언자가 예수였다고 알려준다(행 3:19-26).

히브리서 1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에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셨으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진술한다. 예수는 신성을 가진 교사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의 계시자로 오셨다.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예수는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권위 있게 말씀하셨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마 7:28-2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막 12:37b).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분의 적대자들까지도 동의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요 7:46)고 하였다.

예수의 예언자적 사역은 그분이 천국으로 돌아가시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졌다. 예수께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믿음과 충만한 확신으로 수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 예수는 말씀하셨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요 7:16).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요 8:38).

E. 예수, 우리들의 대제사장

제사장은 이교에서든(행 14:13) 성경에서든(마 8:4) 어떤 종교의 목회자 또는 인도자였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지도자였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는 우리들의 제사장으로 10번 언급되고 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모형이었던 아론의 원형으로 묘사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다(벧전 2:9).

히브리서 5장 1절에 설명된 대제사장의 의무들은 다음과 같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모세 시대아래 대제사장의 기능은 성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바치는 것이었다. 아론은 인간이고, 따라서 죄 많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과 그의 가족의 죄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했다(레 16장).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죄들을 위해서 속죄소(Mercy Seat, 시은좌=은혜의 보좌)에 피를 뿌릴 수 있었다. 이 행위로 이스라엘의 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어린양"이 백성의 죄들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였다.

1)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예수.** 히브리서 5장 4-6절에서 저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기록한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고, 시편 110편 4절에서 그 사실을 진술하였다.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우리들의 예언자, 대제사장, 그리고 왕이시라고 진술하였다. 예수께서 아론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아론은 레위 족속, 즉 제사장 족속으로부터 왔다. 신약성경 저자들은 예수께서 "다윗의 집 족속"(눅 2:4; 비교: 막 11:10; 마 21:9)이었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예수는 왕족이었던 유대 족속으로부터 나와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가? 대답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속에서 발견된다(히 6:20; 7:15-17).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상위에 있었고,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히 7:1-4).

2) 그분의 준비. 예수의 준비 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수련은 그분이 하늘의 영광들을 버리고, 그분이 대표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을 때 시작되었다(빌 2:5-8).

히브리서 2장 14절은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혈과 육"의 참여자 또는 그것을 나눈 자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분의 준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것에서 계속된다. 이 위대한 직책을 위한 그분의 수련의 일부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보인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그분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따라서 완벽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읽게 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적절하게 중보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히 2:17-18).

죄짓는 것 말고는 그분이 겪지 아니한 인간의 경험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들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으로써 그분은 오늘도 죄와 연약함으로 둘러싸인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신다(히 4:15-16; 롬 8:33-34).

3) **그분의 드림**. 아론이 옛 언약아래서 이스라엘의 죄들을 구속하였을 때, 그는 희생 제사를 위해서 송아지들과 염소들의 피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제사장 예수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바치셨다(히 9:11-12).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말씀들에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주목하게 된다.

a.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희생 제사를 바친 성막은 광야의 천막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었다. 구속은 예루살렘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루어졌다(히 9:24).

b. 그분의 희생제단은 성전 뜰의 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의 험한 십자가였다.

c. 그분의 희생제물은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가 아니고, 오히려 흠과 점이 없는 어린양(벧전 1:19), 그분 자신의 "보배로운 피"였다. 그분은 희생 제물이었고, 또한 제사를 바치는 분이셨다(요 10:17-18).

d. 그분의 희생 제사의 효과: 구속의 날에 드리는 아론의 희생 제사의 효과는 단지 해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없이하지 못하였다(히 10:4).

그러나 예수께서 그분의 희생 제사를 바치셨을 때, 그분은 해마다 그분 자신을 바칠 필요가 없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히 9:26). 예수는 동물 제사를 폐지시키고, 영원토록 죄를 없게 하며, 그분의 피를 통한 영원한 구속을 가능케 하는 전적으로 완벽한 희생 제사를 단번에 바치셨다.

F. 예수, 우리들의 왕

1) **왕이 되시기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위대한 직책인 왕의 직책은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언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렘 23:5; 비교: 슥 6:13).

그분의 왕직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긴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눅 1:32).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사람이 그의 씨로부터 나와서 한 왕국을 세워 영원토록 지속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삼하 7:12-13). 이 예언이 예수에게서 성취된다.

2) 왕이라고 주장하신 예수. 침례 후, 그분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예언하셨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예수께 물었을 때, 그분은 "네 말이 옳도다"고 대답하셨다. 이것은 "그렇다"와 같은 말이다(눅 23:3).

3) 그분의 왕국의 성격. 예수는 그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일러주신다.

예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다(비교: 롬 14:17; 히 1:8-9). 그리스도는 진실로 왕이시다. 그분은 진리의 왕, 구원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이시다. 그분의 통치는 인간들의 마음들에 대한 것이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4) 그분의 통치 기간.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한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 1:33).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부르심과 선택을 열성으로 굳게 하라고 권한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벧후 1:11).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애쓰시면서 지금 중재

자적인 통치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들은 그분이 머리에 쓰신 많은 면류관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이 진실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계 19:12,16)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질문들-예수 그리스도

진위(眞僞)-OX문제

_____1. 예수라는 이름은 구세주를 의미한다.

_____2.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_____3. 주라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말한다.

_____4. 중보자는 양쪽을 화해시키는 자이다.

_____5. 예언자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자이다.

_____6. 그리스도는 모세처럼 예언자이다.

_____7. 대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죄를 위한 희생 제사를 바치는 것이었다.

_____8. 예수는 아론의 반차를 좇아 된 대제사장이었다.

_____9. 구약성경에서 예언자들은 대언자와 예언자 모두였다.

_____10. 예수는 영원토록 왕일 것이다.

빈칸 채우기

1.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그리스도께서도 갖고 계신 권능 두 가지를 적으시오.

a._____

b._____

2. 죄를 위한 아론의 희생 제사와 죄를 위한 예수의 희생 제사 사이의 세 가지 현저한 차이들을 적으시오.

a._____

b._____

c._____

3.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화해를 받으시는가,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화해를 받는가?(고후 5:18-20; 엡 2:14-18)

_____

_____

_____

제3강
성경
The Bible

1. 성경에 대한 이름들
2. 성경의 기원
   A. 성경은 그것의 기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B. 성경의 신(神)적 기원에 대한 증거들
      1) 성취된 예언
      2) 놀라운 통일성
      3) 논리적 입증

3. 성경의 가치
   A. 타락한 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치
   B.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치

4.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
5. 말씀의 신성함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책이다.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말하기를, "나는 그것에 관한 모든 이론들을 떠나서, 일찍이 펜으로 쓰인 가장 위대한 작품들 가운데 하나인 성경을 '숭고한 책! 모든 사람의 책!'이라 부른다."

그것은 단연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다. 지난 100년간 해마다 2백만 부씩 팔렸고, 2,00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어졌다. 성경은 다른 책의 추종을 불허한다.

알렉산더 캠벨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 마치 태양계에서 태양이 위성들에게 그런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지적 도덕적 세계에서 빛과 생명,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의 원천이다. 전 인류에게 있어 성경에서 기인되지 아니한 영적 개념은 없다. 신학자가 **유일무이한 최고의 책인 성경**을 떠나서 인간에게서 영적 개념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철학자가 자연에서 독자적인 광선 하나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만큼이나 오래 걸릴 것이다(*The Christian System*, p. 3).

1. 성경에 대한 이름들

성경(Bible)이란 말은 그 자체가 단순히 "책"을 의미한다. 많은 종교들이 종종 경전으로 불리는 그들의 성스런 글들을 수집하여 갖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기독교 믿음의 근거와 권위로 인정받고 사용된 구약과 신약성경말씀들의 수집을 의미한다. 성경은 그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용어들도 사용한다.

A. 하나님의 말씀(Word of God)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살전 2:13).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벧전 1:23)고 진술한다.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또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B. 살아있는 말씀(Living Oracles or Oracles of God)

스데반은 시내 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살아 있는 말씀"(living oracles, 행 7:38)이라고 말한다. 말씀은 신성한 존재 또는 원천으로부터 전수된 메시지이다. 이 이름은 여호와로부터 전수된 이 메시지가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살아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the oracles of God, 롬 3:2)이라고

부른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그것들을 지키게 하라고 말하였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신 32:47, 비교: 히 4:12).

C. 거룩한 말씀(The Holy Scriptures)

바울은 구약성경 기록들을 "성경"(the Holy Scriptures, 롬 1:2)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사용된 표현인 "성경"(sacred writings)을 의미한다. 성경(scripture)이란 말은 그 자체가 "기록"(writing)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님과 사도들이 구약성경책들에 대해서 사용한 보편적인 용어이다(마 21:42; 막 14:49; 눅 24:32; 요 5:39; 행 18:24; 롬 15:4).

2. 성경의 기원

A. 성경은 그것의 기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법정에서 유언 작성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 유언이 실제로 무엇을 스스로 말하는가이다. 만약 그 유언이 존 브라운(John Brown)이 그것의 작성자라고 진술한다면, 그것을 달리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증거를 요한다. 이 원칙은 성경의 실제 저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사실로 작용한다. 성경이 그것의 저자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조사해보자.

1) 구약성경 - 구약성경 저자들은 수백 번이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한다(출 24:12, 25:1; 겔 5:5,11).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말한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예언해야할 자신의 소명을 기술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렘 1:9).

구약성경말씀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그것들의 영감에 관하여 말하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사도 베드로는 구약성경에서 예언자들이 그들 자신의 메시지를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우리들에게 일러준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벧후 1:21). 예수와 사도들이 구약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 신약성경 - 구약성경 저자들은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선포하였을 뿐 아니라, 신약성경 저자들 또한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였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에서 말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베드로는 바울의 글을 "성경"으로 언급하면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 3:16)고 말한다. 여기서 사용된 성경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간주된 특별한 책을 가리킨다. "다른 성경"이란 표현은 베드로가 바울의 글을 구약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그분이 그들에게 일찍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요 14:26; 비교: 마 10:19,20).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그의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살전 2:13)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성경의 일치된 증거는 그것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것

은 성령에 의해서 영감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B. 성경의 신(神)적 기원에 대한 증거들

1) 성취된 예언 - 성경이 영감으로 되었다는 위대한 입증들 가운데 한 가지가 성취된 예언이다. 이것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예언자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다는 강한 증거이다. 때로는 운이 좋아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사람도 있지만, 수십 번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우연의 가능성은 제거된다.

	예언	성취
(1) 예수의 출생지	미 5:2	눅 2:1-7
(2) 예비자 침례요한이 예언됨	사 40:3; 말 4:5	마 3:1-3; 11:11-14
(3) 유다에게 배신당함	시 41:9	요 13:18; 눅 22:47-48
(4) 범죄자들과 함께 처형당함	사 53:9,12	눅 23:33
(5) 뼈를 꺾이지 아니함	시 34:20	요 19:31-37
(6) 부자에 의해서 매장됨	사 53:9	마 27:57-60
(7) 그의 부활이 예언됨	시 16:10	마 28:1-6

a. 예수에 관한 예언들 - 다음은 예수에 관한 예언들과 신약성경에 실린 성취된 일들의 일부 목록이다.

이것들과 다른 많은 구약성경의 예언들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

2) 놀라운 통일성 - 성경은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 개의 다른 대륙에서 기록되었다. 저자들의 직업은 목자, 왕, 농부, 의사, 학자 등이었다. 성경은 세 가지 다른 언어들로 기록되었고, 66권의 각기 다른 책들과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주제를 다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한 권의 책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 통일성은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예로 들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수많은 다른 종류의 악기를 가진 100여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단 연주를 시작하면,

하나의 웅장한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연주할 때, 한 사람의 탁월한 지성, 즉 모든 연주자들을 지휘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지휘자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 이상 연주할 훌륭한 오라토리오를 만드셨다. 한 명이 침묵하면, 다른 사람이 음악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일치된 웅장한 심포니였다. 주제는 결코 상실되지 않았다. 마지막 음악소리가 사라져갈 때, 이 모든 영광스런 동작들과 멜로디를 통해서 하나의 웅장한 주제가 있었다는 것이 보인다.

개개인 음악가가 자기 자신의 음악을 작곡하고 또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였는가? 아니면, 그것 모든 배후에 한 명의 작곡자와 한 명의 지휘자가 있었는가? 진정한 결론은 하나님이 성경의 참된 저자이시며, 성령을 통해서 개개인 저자에게 영감을 주시면서 그들을 지휘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답변이다.

3) 논리적 입증 - 요한 웨슬리는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매우 짧지만 흥미로운 방법을 갖고 있었다. 그는 성경이 선한 사람들이나 천사들, 또는 악한 사람들이나 귀신들, 아니면 하나님의 작품이 틀림없다고 말하였다.

a. 그것은 선한 사람들이나 천사들의 작품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 자신의 작품이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라"(Thus saith the Lord)고 말하면서, 성경을 쓸 때마다 거짓을 말하거나 말할 수가 없고, 또 그와 같은 책을 만들지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이다.

b. 그것은 악한 사람들이나 귀신들의 작품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의무들을 명령하고, 모든 죄를 금하며, 그들의 영혼들을 영원토록 있는 지옥에 떨어지라고 저주하는 책을 만들지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이다.

c. 그러므로 그는 이 결론, 즉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3. 성경의 가치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가? 타락한 자들에게 성경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양자 모두에게 그 중요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안다.

A. 타락한 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치

성경말씀은 진술한다.

1)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야고보는 말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약 1:18).

2)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약 1:21).

3)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하는 능력을 아는 우리들의 지식의 근원이다. 말씀이 없이는 그분의 구원하는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책임인 믿음도 순종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려고 이용하는 채널이다.

B.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치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필수적이다. 성경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유용한데는 많은 방법이 있다.

1) 영적 성장의 도구로써.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2). 성경이 영적인 사람에게 유용한 것은 음식이 육체

에 유용한 것과 같다. 성경은 그의 영혼에 필요한 음식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 4:4)고 하셨다. 말씀 연구를 소홀히 하면 영적인 허약자가 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탁하였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행 20:32).

a.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들은 죄의 더러움을 씻게 된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요 15:3)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은 온갖 죄로부터 우리들을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안다(요일 1:7; 히 9:14). 그러나 우리들이 그 피에 인도되는 것은 (그것의 지식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이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대답하였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시 119:9).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이기 위해서 깨끗하게 유지되고, 따로 세워지며, 성결케 되는 도구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고 하셨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죄를 멀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들을 이 책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b.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공격에 맞설 수 있다. 사단이 예수를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공격을 물리치셨다(마 4:1-11).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였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 6:11,17). 성경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죄를 대항하여 싸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검이다. 시편 기자 또한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11).

c. 말씀에 대한 철저한 지식은 영혼 인도자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준다. 불신자라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불경스런 주장으로 지방의 많은 목회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한 부흥강사가 그 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 사람은 부흥회에 참석하여 온갖 주장으로 부흥강사를 굴복시키려고 하였다. 불신자가 앞서 질문하고, 부흥강사는 그의 질문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라"로 대답하였다. 그는 실망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집회장소를 떠나갔다. 다음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논쟁이 어떠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였다. "잘 하지 못했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것이 아니었거든."

4.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

여호와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계시는 지식의 책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초대하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사 1:18)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어떤 지식서적에 접근하는 것과 동일한 지력과 심사숙고함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성경을 더욱 이해할만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정확한 연구에 필요한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A. 누가 말하고 있는가를 결정하라.

말하는 자가 하나님일수도 있고, 사단이나 발람의 노새나 어리석은 자일 수도 있다. 특별한 진술을 누가 말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B. 누구에게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방 죄인에게 말하고 있는가? 의미는 그것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C. 무엇에 관해서 그것이 말하고 있는가?

내용이 무엇인가 - 이 특별한 구절 앞에 무엇이 놓여있고, 무엇이 뒤따라 나오고 있는가? 지식에 관한 이 단순하고 작은 내용이 자칫 어렵게 느껴질 많은 구절들을 명료하게 밝혀 줄 것이다.

D. 언제 그것이 말하고 있는가?

물어야 한다. 이 구절이 족장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인 것인가, 아니면 모세시대의 사람들에게 쓰인 것인가, 또는 기독교시대의 사람들에게 쓰인 것인가? 하나님은 이들 매 시기마다 다른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셨다. 그리스도인이 오늘 그를 위한 하나님의 지시들을 따르는 것은 그에게 중요하다. 이 마지막 규칙이 가장 중요하다.

5. 말씀의 신성함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인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뤄져야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였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신 4:1-2).

비슷한 개념이 성경의 마지막 훈계 속에 들어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8-19).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위태로울 때 그

것에 더하거나 그것을 제하거나 그것을 무시한다. 모든 사람들이 백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이 말씀은 그때 그들을 심판할 책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우리들을 구원할 것이다. 만일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것은 우리들을 정죄할 것이다. 바울이 권하는 말에 주의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게 하자(골 3:16).

질문들-성경

빈칸 채우기

1. 성경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_____

2. 말씀(=신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_____

   _____

3. 한 문서의 저자를 밝히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

   _____

   _____

4. 성경은 _____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_____개의 대륙에서, _____년의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다.

5. 요한 웨슬리는 성경에 대한 자료들이 오직 다섯 개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다섯 가지가 무엇들인가를 쓰시오.

   a. _____ b. _____ c._____

   d. _____ e. _____

6. 말씀이 신자에게 주는 세 가지 축복들을 쓰시오.

   a. _____

   b. _____

   c. _____

7. 말씀은 타락한 자들에게 무슨 축복들을 가져다주는가?

a. _____

b. _____

c. _____

8. 성경을 이해하는 네 가지 법칙들을 쓰시오.

a. _____

b. _____

c. _____

d. _____

제4강

교회

The Church

1. 교회는 무엇인가
   A. 교회란 말의 의미
   B. 그 말의 지역적 보편적 의미

2. 교회의 시작
   A. 교회시대에 대한 예언
   B. 교회 또는 나라의 설립
   C. 예언에 의한 증거

3. 교회의 설립자
4. 교회의 기초
5. 교회의 정치
6. 교회를 위한 이름들
   A. 교회
   B. 하나님의 교회
   C. 하나님의 집
   D. 하나님의 성전

1. 교회는 무엇인가

A. 교회란 말의 의미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기술하려고 선택한 용어는 고대 헬라어,

"에클레시아"(ecclesia)였다. 오늘날의 "교회에 관한"(ecclesiastical)이란 말은 그것에서 유래한다. 그 말은 원래 자유 도시국가에서 시민들의 보통의 집회를 가리켰다. 시민들은 왕의 사자(使者)로부터 공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불러냄"(called out)을 받았다. 따라서 그 말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the called out ones)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에서 의에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즉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다. 베드로는 이 개념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나와(고후 6:17-18)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불러냄을 받았다.

스데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회중 또는 광야 교회로 언급하였다(행 7:38).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그분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교회의 모형이다.

B. 그 말의 지역적 보편적 의미

신약성경에서 교회란 말은 지역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개개의 회중(교회)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전 세계 공동체를 말하기도 한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한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에서는 교회란 말이 다수의 교회들을 뜻한다. 종종 바울은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들의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곤 하였다(롬 16:3-5; 골 4:15; 몬 2). 다른 한편,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폭넓은 의미의 교회를 말한다. 각각의 회중은 그 공동체에서 교회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전체 모임의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룹들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질 수 있으나 여전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

회 안에서는 하나이다. 토마스 캠벨의 다음과 같은 교회에 대한 정의는 어느 누구의 것 못지않게 훌륭하다.

>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성서대로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복종하며, 그들의 기질과 행동에서만큼은 같은 것을 표명하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한다. 다른 누구도 참으로 적절하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 질 수 없다. <Robert Richardson, *Memoirs of Alexander Campbell* (Cincinnati: Standard Pub. Co., 1890, Vol. 1.), p. 258.>

2. 교회의 시작

A. 교회시대에 대한 예언

성경에서 교회란 말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다. 예수는 베드로를 축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8)고 하셨다. 미래시제를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는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셨다. 예수는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그분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베드로에게 피력하셨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9). 18절에서 교회란 말과 19절에서 천국이란 말을 사용하신 것은 이들 용어들이 상호교체 가능하다는 증거이다. "교회"와 "나라"란 용어들도 바울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하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고 나서 같은 맥락에서 "몸인 교회"라는 말로써 18절에서 동일한 본질을 기술한다. 이들 용어들은 백성의 동일한 몸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교회의 설립은 베드로와 나눈 이 담화 이전에 언급되었다. 침례 요한은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 "가까웠다"는 표현은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이어 예수께서도 전파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4:17). 주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막 9:1). 나라는 사도들의 시대에 권능으로 세워지기로 되어있었다.

B. 교회 또는 나라의 설립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기간 동안에는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셨다. 부활 후, 제자들이 그분에게 물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행 1:6). 예수는 대답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7-8). 그분은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눅 24:49)고 명령하셨다. 성령과 나라의 설립에 관한 이들 약속들의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첫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2장 1-42절을 읽으시오. 그 때에 사도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약속된 권능을 받았다. 베드로는 첫 복음 설교를 전파하였고, 대략 3,000명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메시아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로 침례를 받았다(행 2:36-41).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입교조건들이다. 오순절 날 이후 교회에 관한 모든 언급은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행 5:11; 8:1 참고). 베드로는 교회출범에 관한 문제를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처음"이란 말로 오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해결하였다.

C. 예언에 의한 증거

교회출범에 관한 신약성경으로부터 이곳에 제시된 증거는 예언에 의해서 확정된다. 이사야 2장 1-3절은 기독교 시대를 언급하는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라고 예언하였다. 그것은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고 중요한 예언을 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으나 그분의 아들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도록 되어있었다. 예수께서는 이 예언을 누가복음 24장 46-47절에서 다음과 같이 확증하셨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나라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있고 난 다음 오순절 날에 설립되었다.

3. 교회의 설립자

교회는 정치나 사회기관처럼 인위적인 기구가 아니다. 그것은 신성한 조직이다. 그것은 신성한 설립자와 신성한 머리를 갖는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분의 교회이다. 그분은 설립자이시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다(골 1:18). 바울은 그것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딤전 3:15)라고 부른다. 교회는 그분 자신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구원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교량이다(엡 5:25이하).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언급된다(엡 1:22-23; 골 1:18). 몸으로써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엡 1:23).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분이 그것을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도록"(행 20:28; 벧전 1:18-19) 지시한다.

4. 교회의 기초

신성한 머리를 가진 신성한 교회는 또한 신성한 기초를 필요로 한다. 이것을 그것은 갖는다.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을 때, 예수는 대답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전 성경말

씀을 통해서 예수는 반석으로 언급되어진다. 예를 들어, 이사야 28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촛돌이라...." 베드로는 이 구절을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에서 인용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 예수는 인간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돌로 언급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다. 바울은 교회의 기초에 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해결한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1). 그리스도는 교회의 설립자이시다. 그분은 그 기초이시다.

5. 교회의 정치

적절하게 기능하는 모든 기관 또는 조직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를 갖는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교회가 보편적으로 고려될 때, 그것의 정치형태는 절대군주제이다. 그러나 지역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제한된 자치권을 갖는다.

A.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자 절대주권자이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엡 1:22).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엡 5:23).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골 1:18; 참고 2:10).

1)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서 예수는 모든 권세를 갖는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

니"(마 28:18).

2) 교회의 머리로써 그리스도는 모든 입법 권세를 갖는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와 그것의 활동을 치리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권세를 갖는다. <Don DeWelt, *The Church in the Bible*(Joplin, MO: College Press).

그분은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하는 법률들을 제정하셨다.

a. 시민권의 자격. 요 14:6; 막 16:16.

b. 국가 공무원의 자격. 딤전 3:1-13; 딛 1:5-9.

c. 시민들의 의무. 마 5:3-7:27; 벧전 2:21.

d. 공무원들의 의무. 딤후 4:2; 벧전 5:2; 행 6:1-6.

e. 재정법. 고전 9:1-13; 16:1-2; 딤전 5:17-18.

f. 징계법. 고전 5:1-13; 살전 5:12; 딤전 5:20.

g. 배교자의 복귀법. 행 8:18-24; 고후 2:5-11.

이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위임에서 제자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명령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알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20).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이 명령에 대한 순종에 좌우된다.

B. 지역교회의 자치.

교회는 인간들로 구성된다.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제한된 자치권을 허락하셨다.

1) 이 자치의 성격. 이 권한은 민주적이다. 지역교회의 회원권은 자치문제에 있어서 최종권한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6장 35절, 11장 29-30절,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 보인다.

이 권한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감독들인 장로들을 통해서 시행되어진다. 그들은 교회에 의해서 선출되며, 교회를 위해서 인도하고 다스린다(벧전 5:1-5 참고).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1-7절과 디도서 1장 5-9절을 보시오.)

2) 이 자치권의 제한들. 자치영역에서 교회에 주어진 분명한 제한들이 있다. 다스리고 결정할 교회의 권한은 성경이 어떤 분명한 지

시들을 주지 아니한 곳에서 견해와 편의의 문제들에 국한된다. 예를 들면, 교회가 선출해야할 장로들이나 집사들의 수, 어떤 형태의 건물을 교회가 필요로 하는가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서 중요한 문제들이기는 하나 교회를 인도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라"는 전혀 아니다. 이것들은 교회가 인간의 판단에 맡긴 분야들이다. 심지어 이러한 분야들에서 그와 같은 결정들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르침에 맞춰서 이루어져야한다. 헤이든(L. L. Hayden)은 그의 책, 『교회체제』(Church Polity)에서 자치에 관한 이 주제에서 다음과 같이 소견을 말하였다.

> 어떤 경우, 무슨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투표할 권리가 주어지는가?
>
> 그들은 믿음, 경건, 또는 도덕에 관해서 투표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진리는 투표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배 또는 도덕을 다수결로 결정해야한다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어떤 것도 없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권한의 문제들이거나 계시이며, "다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니라"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라"에 의해서 규정되어야할 것들이다. 그러나 믿음, 경건, 도덕에 관한 것이 아닌 모든 문제들, 즉 편의의 문제들에서는 형제들의 투표에 의한 결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Don DeWelt, *The Church in the Bible*(Joplin, MO: College Press).

6. 교회를 위한 이름들

A. 교회(The "Church")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자주 사용된 호칭이다. 때때로 그것은 교회가 세워진 지명과 함께 사용된다. 예를 들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행 9:31) 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살후 1:1)가 그것들이다. 어떤 한정구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하면 교회의 유일성을 가리킨다. 사회에 그와 같은 것은 달리 아무것도 없었다. 오로지 하나뿐이었다. 그리스도는 오로지 하나만을 세우셨다. 교회는 많은 나라들과 많은 대륙에로 확장되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그 교회"(The Church)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몸의 지체들이었다(고전 1:2).

B. 하나님의 교회(The Church of God)

다음으로 가장 자주 사용된 용어는 "하나님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었다(고후 1:1). 이 이름은 교회를 계획하시고 처음 시작하신 분을 가리킨다. 그것은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리킨다.

C. 하나님의 집(House of God)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이름은 교회를 한 가족으로 제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에 거주하시며, 만인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한다. 예수께서도 또한 우리들과 함께 거주하시며,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맏형과 같다. 로마서 8장 17절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한다. 갈라디아서 3장 26-27절은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가를 밝힌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D. 하나님의 성전(Temple of God)

고린도전서 3장 16-17절. 이 이름은 교회의 예배모습을 기술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성전, 즉 교회에 거주하시며,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 베드로는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5)고 말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살아있는 돌들로 만들어진 하나의 영적 성전이다(엡 2:19-22 참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개개인 신자 안에 거주하신다(행 2:38). 만약 신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신실하다면, 그 날에 그는 그분을 친히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요일 3:2). 그 날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거주하실 것이며, 그

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계 21:3). 이것이 교회를 위한 장엄한 목적이요 목표이다.

질문들-교회

진위(眞僞)-OX문제

_____1.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속적이기보다는 영적이다.

_____2. 교회와 나라는 다른 몸체들이다.

_____3. 이사야는 그 나라가 시온에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_____4. "교회"라는 용어는 항상 지역 교회를 말한다.

_____5. 믿음은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요건이다.

_____6. 그 나라는 유월절 때에 세워졌다.

_____7. 교회는 침례 요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_____8. "에클레시아"(ecclesia)란 말은 원래 헬라시민들의 집회를 말한다.

_____9.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들이다.

_____10.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빈칸 채우기

1. 교회의 정치형태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_____ 제를 말하고, 그러나 지역교회는 _____을 갖는다.
2. 삶의 어떤 영역에서 교회는 투표할 권한이 필요하거나 규칙을 만드는가?

   _____

   _____
3. 교회를 위한 이름들 두 개를 말하고 각각의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_____

   _____

제5강

믿음

Faith

1. 신약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의 사용
   A. 기독교(또는 신앙내용) 대용으로 사용된 믿음
   B. 그리스도인의 삶을 서술하는 믿음
   C. 이방 죄인에게 적용된 것으로써 믿음

2. 믿음이란 무엇인가?
3.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는가?
   A.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느 다른 믿음과 유사한 방법에서 만들어진다.
   B. 믿음은 증언이나 증거의 수용으로부터 기인된다.

4. 믿음의 순종과의 관계
   A. 믿음의 순종
   B. 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믿음이다.

5. 믿음의 은택(恩澤)
   A.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B. 믿음의 몇 가지 특별한 은택들
      1) 그것은 인간을 위한 구원을 확보한다.
      2)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3)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온다.
      4)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생각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비전을 고취한다.

1. 신약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의 사용

A. 기독교(또는 신앙내용)의 대용으로 사용된 믿음

믿음이란 말은 신자가 신뢰하는 진리의 체계나 기독교에 대한 또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유다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유 1:3)고 적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 23절은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누가는 박수 엘루마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였다고 적는다. 이들 구절들은 물론이고, 다른 인용 가능한 많은 구절들에서 "믿음"이란 말은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B. 그리스도인의 삶을 서술하는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고 적고 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고 적는다. 이들 성경구절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일하며, 믿음으로 걷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그리스도인은 진실로 믿음으로 산다.

C. 죄인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믿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죄인은 믿음을 가져야 하며, 언제나 표현되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어야한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5-16). 바울은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

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0-31)고 대답하였다. 예수와 바울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있어서 하나의 필수적인 행위로써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였다. 사람의 구원에 아주 필수적인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자.

2.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다. 저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증," 또는 "기초"로 정의한다. 그것은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확신," 또는 "실증"이다.

객관적 의미에서 사용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근거가 되는 증거 또는 보증이다. 주관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신념"이다. 그와 같은 확신 혹은 신뢰는 신자로 하여금, 마치 그것이 지금 손안에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미래를 헤쳐 가도록 한다. 그것은 어느 날 우리가 갖게 될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확고한 확신이다. 히브리서 11장은 참된 믿음은 아브라함, 모세, 라합, 기타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신뢰할만하다고 믿었던 하나님을 단순히 의존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풍성하게 보여준다.

믿음의 성격을 아마 좀더 정확하게 기술하는 또 다른 단어는 신뢰라는 말이다. 일반적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들이나 원리들을 진실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이 생존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믿을는지는 몰라도 한 사람으로서 그를 신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기독교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사실들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을 주님과 구세주로 신뢰한다는 부가된 요소가 있다. 로마서 4장 20-21절에서 소개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우, 이 신뢰의 요소를 설명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

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믿음에 견고하여졌다." 그는 하나님을 아주 완벽하게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이삭을 죽일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실 것을 믿었다(히 11:17-19).

로버트 리차드슨(Robert Richardson)은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이 "믿음이란 말의 의미를 풍부하게 표현하는 말로 '신뢰' 또는 '확신'"을 고려하였다 진술한다.

> 이 단순하고 포괄적인 견해는 캠벨 자신이 그의 이어지는 신앙역정 속에서 채택하였고, 또 그의 전 생애 기간에 계속해서 주장하였던 것이었다. 많은 논쟁들 속에서, 진실로, 그는 자주 그 주제에 관한 일반적인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는 증거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고집하였고, 증거가 없으면, 어떤 믿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진솔하게 주장하였다. 그런가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그분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으로, 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지명된 인류의 구세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개인적인 신뢰를 구성하는 것으로 언제나 간주하였다. <Robert Richardson, *Memoirs of Alexander Campbell*, Vol. I.(Cincinnati, OH: Standard Publishing Compan, 1890), pp. 177-178.>

3.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는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은 무엇이나 신비하게 본다. 실제로, 그것이 더욱 신비하게 드러나면 날수록, 그것은 일부 사람들에게 더욱 신비스럽게 나타난다. 인간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측면들이 일부분 있어왔지만, 대부분은 믿음이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방법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과정에 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을 우리의 처음 생각에로 가져온다.

A.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느 다른 믿음과 유사한 방법에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어떻게 믿음이 어떤 역사적 특성에서 만들어지는가?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은 증거와 증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조지 워싱턴을 생존인물로 믿는 것은 그에 관해서 기록된 많은 책들과 그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기념물들, 그리고 그가 생존했었다는 다른 증거들 때문이다. 어떻게 사람이 의사를 믿거나 신뢰하게 되는가? 분명히 그는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불러일으킬 증언과 증거를 수용하였음이 틀림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유사한 형태에서 만들어진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생존했었고, 그분이 주장하셨던 그대로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풍성한 성경의 증거를 사실로 수용한다. 하나님은 감성적이고 지성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에 호소하신다.

B. 믿음은 증언이나 증거의 수용으로부터 기인된다.

성경말씀들은 매우 분명하게 믿음이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수용하는데서 만들어진다고 지적한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요 5:46-47).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0-31).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행 15:7).

이 구절들은, 다른 모든 믿음처럼, 기독교 믿음이 증언에 기초하고 있음을 백퍼센트 분명하게 한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6-17절에서 어떻게 믿음이 만들어지는가를 수정처럼 맑게 한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디(D. L. Moody)는 목회자 초기시절에 종종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고 있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는 갑자기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믿음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믿음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무디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읽으면서, 또 그것들을 수용하려고 애쓰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 밖의 종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읽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신은 증대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가 읽고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로 그의 마음을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그의 확신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방법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가운데서 증대되었다.

4. 믿음의 순종과의 관계

번번이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의 정확한 관계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킨다. 어떤 이들은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성경말씀을 좀더 조심스럽게 연구해보면, 믿음과 순종은 두 가지 분리된 행동들이기보다는 그것들이 실은 하나요, 두 부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A. 믿음의 순종

바울은 자주 "믿음의 순종"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롬 1:5)라고 말한다(롬 16:26 참고). 사도행전 6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

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믿음의 순종"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믿음의 순종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순종 또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다. 복음은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파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다.

1) 두 종류의 순종.

세상에는 적어도 두 종류의 순종이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순종이다. 한 가지 종류의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다른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은 수많은 영향들이나 동기들 때문에 행동할는지 모른다. 사람에게 행동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원리는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사업에서 정직할는지 모른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정직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무관심할는지 모른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순종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해도 좋으나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과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지 혹은 우리가 어떤 다른 동기 때문에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인간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어떤 행동들을 선택하셨다. 예를 들면, 하와가 볼 때, 그녀가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것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므로 먹지 말아야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것은 명백한 불순종의 행동이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비슷한 순종의 행동을 요구해오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침례의 행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음, 나는 침례의 행위와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련도 볼 수 없는걸." 하고 말할 것이다. 합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침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한 과정의 일부분인가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000명에게 설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고 하였다. 사람이 침례의 행위에 순종할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믿음의 테스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의 테스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B. 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믿음이다.

이것은, 야고보가 믿음은, 만약 순종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였을 때 의미했던 것이다.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결단코 순종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약 2:14-26). 그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쳤을 때, 그의 믿음을 입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한다. 순종은 사람이 그의 믿음에 부가해서 또는 그의 믿음을 떠나서 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의 행동의 믿음이다. 사람은 그것이 그를 순종에로 인도하지 않는 한, 참된 믿음을 갖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또한 사람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가 혹은 순종만으로 구원받는가에 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는 두 가지 모두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예를 들자면, "가위의 어느 쪽 날에 의해서 천이 잘려지는가?"라는 질문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은 양쪽날에 의해서 잘려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날과 순종의 날 모두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둘은 분리될 수 없다.

5. 믿음의 은택(恩澤)

믿음의 중요성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은 원리이기 때문에 과장될 수 없다.

A.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전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오셨고, 믿음의 원칙에 따라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한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시는 위대한 원리를 압축한 한 가지 용어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혜택들을 은혜를 통해서 인간에게 확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이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도록 가능케 하는 한 가지 가능한 수용태도는 믿음이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이다.

B. 믿음의 몇 가지 특별한 은택들

1) 그것은 인간을 위한 구원을 확보한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행 15:9).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말하기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믿음은 확대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성경말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은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해되어진다. 그것의 입증으로써 베드로는 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롬 6:17-18 참고)고 하였다.

2)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마도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가장 큰 모독은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다. 예수는 그분의 제자들의 다른 어떤 잘못보다도 이 연약함을 더 자주 꾸짖으셨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절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권세에 대한 모독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3)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온다. 예수는 승천하시기에 앞서 슬픔에 잠긴 그분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에 잠긴 마음들의 위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에서 발견되어질 것이다.

예수는 마태복음 6장 25-34절에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다. 단순하게 말해서, 해결책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권세를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체니(Elizabeth Cheney)는 그녀의 다음의 시에서 이 사상을 요약하였다.

> **과수원에서 엿들었다.**
> 로빈이 참새에게 말하였다.
>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이 왜 그렇게 급히 서두르고 걱정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단다."
> 참새가 로빈에게 말하였다.
> "그것은 그들이 당신과 나를 돌보시는 그런 어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4) 믿음은 상기한 은택들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생각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비전을 고취한다. 엘리 V. 졸라즈(Ely V. Zollars)는 이것을 매우 유창하게 기술한다.

> 믿음은 그것의 다양한 사용들에서 매우 넓은 분야를 커버한다는 것이 이것과 관련해서 주목되어야 한다. 믿음은 과거의 닫힌 문을 열고, 미래의 커튼을 활짝 열어젖힌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식은 육체적 감각을 통해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인간은 짐승의 세계를 넘어 무한히 고취된다. 만약 우리가 이들 감각들이 제공하는 증거에 따른 우리들의 지식 속에 갇힌다면, 우리들의 분야는 상당부분 훨씬 더 제한될 것이다. 자연적인 눈과 귀는 단지 작은 세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현미경과 망원경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들은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들은 감각의 눈으로는 우리가 결코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것을 손에 쥘 수 있고, 따라서 결코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 속에서 살 수 있다. <Ely V. Zollars, *The Great Salvation* (Cincinnati, OH: The Standard Publishing Company), pp. 95-96.>

질문들-믿음

진위(眞僞)-OX문제

_____1.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정의된다.

_____2. 믿음은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로 온다.

_____3. 신약성경은 믿음의 차이들을 가르친다. (마 8:26; 15:28 참고).

_____4. 귀신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믿음이 없다.

_____5. 믿음을 갖는 것은 좋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_____6.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일종의 선행이다.

_____7.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순종의 한 행위이다.

빈칸 채우기

1. 믿음이란 말이 어떤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는가?
   a. _____
   b. _____
   c. _____
2.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이 "믿음이란 말의 의미를 풍부하게 표현하는 말로 '_____' 또는 '_____'"

을 고려하였다.

3. 사람은 두 가지 동기들 때문에 순종할는지 모른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

a. _____

b. _____

4. 믿음의 세 가지 은택(恩澤)들을 쓰시오.

a. _____

b. _____

c. _____

제6강.

회개

Repentance

1. 회개란 무엇인가?
   A. 회개의 정의
   B. 회개의 실례

2. 회개가 아닌 것
   A. 회개는 후회와 혼동되면 안 된다.
   B. 회개는 또한 개과천선과도 구별된다.
   C. 회개는 두려움과 혼동되면 안 된다.

3. 회개로 이끄는 동기들
   A. 하나님의 자비 또는 사랑
   B. 죄에 대한 후회
   C. 심판에 대한 두려움

4. 회복 그리고 회개와의 관계
5. 회개의 필요성
   A. 회개는 소외된 죄인에게 필요하다.
   B.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수적이다.

6. 회개의 몇 가지 방해물들
   A. 타고난 마음의 교만이 회개를 방해한다.
   B. 죄 많고 부패한 욕망의 권세는 또 다른 방해물이다.

C. 지체는 회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이다.

성경에서 회개의 촉구는 고대시대 때부터 나타나고 있다. 베드로는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부른다(벧후 2:5). 직접적으로 진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아는 틀림없이 당대의 사람들을 홍수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였을 것이다.

선지자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짖었다(욜 2:12-14; 겔 33:11). 침례 요한은 유대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였다. 예수는 그분의 지상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고 하셨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교회시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오순절 날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행 2:38)고 하였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향한 예수의 메시지에서 그분은 회개의 교리를 강조하셨다(계 2-3장). 이 두개의 장에서 예수는 여덟 번씩이나 '회개하라' 또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회개는 성서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였다. 주님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회개는 오늘날에 더욱 요구된다.

1. 회개란 무엇인가?

A. 회개의 정의

신약성서에서 회개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메타노이아"(Metanoia)이다. 이 용어는 "다른 마음을 갖는 것" 또는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그의 마음을 바꾼다. 회개는 구약의 단어 "돌이킴"에 해당한다. "메타노이나"에 대한 떼이어(Thayer)의 정의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 즉

자기가 지은 과거의 죄들을 미워하고 진심으로 고치는 것"이다 (Thayer's Greek Lexicon, p. 405).

맥가비(J. W. McGarvey) 교수는 회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회개는 죄에 대한 후회로 인한 삶을 고치려는 의지(또는 마음)의 변화이다"(사도행전주석, 61쪽).

이런 정의들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세 단계를 주목해야 한다. (a) 회개는 마음 또는 의지의 변화이다. (b) 이 변화는 죄에 대한 후회에서 생겨난다. (c) 이어서 행동이나 삶의 변화가 뒤따른다.

B. 회개의 실례

참된 회개는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대로 고린도교회에서 설명되어진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하게 꾸짖었다. 그는 나중에 고린도후서 7장 8-9절에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 썼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또는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요...."라고 썼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더 나아가 그들을 회개로 또는 마음의 변화에로 인도했다. 구원이 뒤따라왔고, 그들이 회개한 결과였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또는 방탕한 소년의 이야기는 회개의 좋은 실례이다. 그 젊은이의 죄는 아버지의 권위와 가정에 대한 고집스런 배척에서 보인다. 이 고집 때문에 그는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로 그의 재산을 소비했다"(눅 15:13). 우리는 그가 돈과 친구를 다 잃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게 된다.

그의 회개는 자기 처지에 대해 진실하게 깨달았을 때에 시작되었다. 예수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라고 말씀하셨다(눅 15:17). 이것은 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죄 중에 있는 사람은 판단이 흐리다. 젊은이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것과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가장 천한 종들보다도 더 천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그를

회개, 즉 죄에 대한 후회의 첫 단계로 인도했다. 죄에 대한 후회는 새로운 결심에로 인도했다. 그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리라"라고 말했다(눅 15:18). 그는 죄에 대한 그의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이제 죄를 거부했고, 그것에 대해 후회했으며, 한 때 누린 죄의 쾌락에 지불한 무서운 대가를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이것이 회개로 향하는 두 번째 국면이다.

그러나 그의 회개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와 "고침"이 있어야만 한다. 젊은이는 남은 생애 동안 후회와 새로운 결심만을 가진 채 그 돼지우리에 앉아 있을 뿐 결코 참으로 회개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예수께서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눅 15:20)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회개는 완성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회개의 세 가지 요소들, 즉 죄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된 마음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삶의 개혁이 설명되어진 것을 본다.

2. 회개가 아닌 것

정의와 실례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였으므로,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눈을 돌려서 무엇이 회개가 아닌가를 보임으로써 회개에 대한 이해를 더 한층 도모코자 한다.

A. 회개는 후회와 혼동되면 안 된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후 7:10)고 하였다. 그는 또 "내가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여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고후 7:9)고 하였다. 죄에 대한 후회는 회개로 이끄는 명백한 사전적 행동 또는 동기이지만, 그 자체는 회개가 아니다. 그 두 가지는 원인과 결과처럼 관계된다. 죄에 대한 후회는 원인이고, 마음의 변화는 결과이다. 혹자는 죄 자체에 대한 후회 없이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후회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죄수들

은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후회한다 — 그들이 붙잡힌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사람이 결과에 관계없이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진정으로 후회할 때에만, 이 후회가 그 죄를 버리도록 인도할 것이다.

B. 회개는 또한 개과천선과도 구별된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다. 요한은 그들에게 변화된 삶과 의로운 행동, 즉 참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이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의 개과천선은 회개의 결과이지 회개 그 자체는 아니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도 악행들을 고치거나 심지어 그만 둘 수도 있다. 사람은 술 취함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도 죽음을 피하려고 술 마시는 것을 그만둘 수도 있다. 죄로 가득한 삶에 대한 진실한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었을 때에도, 주변 환경들이 사람의 행동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 개과천선은 회개의 열매이다.

C. 회개는 두려움과 혼동되면 안 된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회개로 인도하는 한 가지 동기인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두려움 그 자체로는 회개가 아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바울은 벨릭스에게 행한 연설에서,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을 거론하였다. 벨릭스는, 바울이 의를 거론하였을 때,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았고, 절제를 말하였을 때, 그것을 행치 않았고, 심판을 언급하였을 때,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에 쌓였다. 그는 바울에게 말하였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행24:25). 바울이 떠난 후에 벨릭스의 두려움은 가라앉았고, 그는 마음의 변화나 개과천선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다.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두려움과 눈물로 주장하지만, 그 후,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들이 회개한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삶을 산다. 두려움은 회개가 아니다.

3. 회개로 이끄는 동기들

성경말씀들은 사람을 감동시켜 회개하도록 하는 어떤 동기들, 즉 "활동력"이 있다고 가르친다. 사람을 이끌어 회개케 하는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동기들은 다음과 같다.

A. 하나님의 자비 또는 사랑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세상에서 가장 큰 동력은 사랑이다. 인간의 구원을 가능케 하려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 사람이 갈보리 언덕에서 보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 때, 이것은 동력이 되어 그를 회개로 인도하게 된다.

B. 죄에 대한 후회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라고 배운다. 사람이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가 사랑한 자들과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는지를 깨닫게 될 때, 또 죄가 그에게 행한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는 후회하게 된다! 이것이 그를 회개로 인도한다.

바울은 또 이 구절에서 두 종류의 근심,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한다. 전자는 구원을 가져오지만 후자는 사망을 가져온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이 두 종류의 후회를 보여주고 있다. 두 사람은 주께 죄를 범했다. 베드로가 닭이 울고 주께서 그를 바라보심에 의해서 죄를 충분히 깨달았을 때, 성경은 그가 "밖에 나가서 심

히 통곡하니라"라고 적고 있다(마 26:75).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활주일 아침에 빈 무덤에 들어간 첫 번째 사도였다. 그는 남은 여생동안을 계속해서 주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의 마음의 변화는 참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삶의 변화로 인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주께로 겸손히 돌아왔다. 거기서 그리스도는 그를 용서하셨고, 설교자로 내보내셨다.

가룟 유다도 주를 배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되어서야 그는 자기 행동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후회하고서, 은 삼십 개를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가져다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고 말하였다고 적고 있다(마 27:4). 우리는 이로부터 유다가 그의 마음을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틀림없이 죄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개는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 유다의 회개에 대한 단어는 "Metanoia"가 아니라, 걱정 또는 후회의 감정을 의미하는 또 하나의 그리스어인 "Metamelomai"이다. 이 후회의 감정은 회개를 가져 올 수도 있고, 단순한 가책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 유다는 주께 발생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였다. 그는 분명히 그분이 유죄선고 받는 것을 계획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의 계획이 어긋난 것이 유감이었다. 그가 죄 그 자체를 후회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는 주께 돌아가서 용서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밧줄로 목매어 자살하였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 그것은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었다. 유다는 사망을 이루는 세상적인 근심을 했다.

C. 심판에 대한 두려움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에게 연설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무지를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해졌다고 상기시켰으며, 또 하나님이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 말하였다(행 17:30). 그들을 감동시켜 회개토록 하려고 바울이 그들에게 주고 있는 동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망이

었다. 그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라고 말하였다(행 17:31).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로 회개를 위한 최고의 동기는 아니지만, 때때로 아주 효과적이다. 종종 사람의 마음은 죄로 대단히 만연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의 대포가 그것을 폭발시켜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도달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세 가지 동기들을 다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흔하다.

4. 회복 그리고 회개와의 관계

회복은 사람이 행했던 잘못들을 고치는 행위이다. 성경은, 사람이 일단 회개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 그가 행했던 잘못들을 바로잡고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설교를 듣고자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였다(마 3:8). 요한은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떤 증거 즉 "열매"가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도행전 26장 20절을 보라.)

삭개오는 이 회복의 원리를 이해하였다. 주를 만난 후에 그는 말하였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눅 19:8). 예수께서 이것을 듣고 회개의 증거를 보시고서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눅 19:9).

수년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사회에 살고 있었다. 그는 사소한 도둑질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이웃집의 삽이나 갈퀴나 창틀을 집어가곤 했다.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훔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절도죄가 있었다.

부흥회기간동안에 그는 자신의 삶을 주께 굴복하였다. 그 지역에

사는 불신자들은 그 다음날 그를 조롱하며 그의 행동을 크게 비웃었다. 그들은 그가 이웃들에게 괭이, 삽, 창틀 등을 도로 갖다 주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지내는 것을 재미있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이것이 아주 우습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도 그 새로운 개종자의 회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의 죄를 고치려는 노력으로써 되돌려준 하나의 삽이 십 수 편의 설교보다 더 웅변적으로 그가 한 회개의 진실성을 밝혀 줄 것이다.

5. 회개의 필요성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위임을 주실 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눅 24:47).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눅 13:3). 바울은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이 한때는 그들의 무지와 우상숭배를 간과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 알려주었다(행 17:30). 회개는 매우 중요해서 인간과 멸망 사이에 서있는 첫째가는 행동들 가운데 한 가지이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는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벧후 3:9).

A. 회개는 소외된 죄인들에게 필요하다.

가장 큰 복음의 목적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이 그를 구원하기에 앞서 그의 마음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으로 응답하는 개인들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침례를 받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꺼이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에만 그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소외된 죄인이 구원의 약속을 주장하기에 앞서 믿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복음에 순종해야만

한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들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한다.

B.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범한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베드로는 사도행전 8장에서 이 질문에 대답한다. 시몬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유혹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었다. 그의 죄에 대하여 심하게 꾸짖은 후에 베드로는 그에게 용서받는 방법을 말해주었다. 그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하였다(행 8:22). 그러므로 두 단계가 필요하다. 즉, 회개와 용서를 위한 기도이다. 회개함 없이 하는 기도는 소용없는 일임이 분명하지만, 회개와 결합된 기도는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6. 회개의 몇 가지 방해물들

A. 타고난 마음의 교만이 회개를 방해한다.

스데반은 공회가 그에게 돌을 던지기 직전에 그들을 심하게 꾸짖으며 말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행 7:51). 사람은 본성적으로 교만하다. 사람은 자기가 범죄 하였으며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악을 인정하기보다는 잘못된 습관을 고수하도록 고무한다. 교만은 자신의 죄와 악을 인정하는 참되고 도덕적인 영웅적 자질을 앗아가 버린다. 겸손은 참으로 매우 귀중한 미덕이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8:3). 탕자가 "교만을 억제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형에게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상

당한 겸손을 필요로 하였다. 교만이 회개를 훼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B. 죄 많고 부패한 욕망의 권세는 또 다른 방해물이다.

> 육욕적인 만족, 식욕, 더러운 쾌락, 정욕, 죄의 총체적인 형태들과 같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되는 회개의 필연적인 결과는 정복되고 포기되어야 한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항복이 있다. 술주정뱅이는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불타는 식욕이 그의 방탕한 습관을 버리려는 신중한 목적을 훼방한다. 후회는 회개를 암시하지만, 식욕이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설이게 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Ely V. Zollars, *The Great Salvation*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mpany, 1805), p. 121>

C. 지체는 회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의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벨릭스처럼 항상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만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채로 삶을 마감한다. 성경은 이에 대항하여 외치면서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우리들을 상기시킨다. 천국은 너무나 좋고, 지옥은 너무나 나쁘며, 영원은 너무 길어서 회개를 미룰 수 없다.

질문들-회개

빈칸 채우기

1. 회개에 대한 맥가비(McGarvey)의 정의를 쓰시오.

   _____

   _____

2. 후회와 회개와의 관계는_____와 _____와의 관계와 같다.
3. _____은(는) 회개의 열매 또는 결과이다.
4. 회개를 훼방하는 세 가지를 쓰시오.

   a._____

b._____

c._____

5.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두 종류의 근심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들은 _____와_____이다.

6.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_____하고 _____해야 한다고 말한다(행 8:22).

진위(眞僞)-OX문제

_____1. 회개에 대한 좋은 정의는 "죄에 대한 후회"이다.

_____2. 회복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_____3.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에 대한 유일한 동기이다.

_____4. 겸손은 회개에 필요치 않다.

_____5. 예레미야는 회개가 예언자들의 주요한 메시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렘 25:4,5).

제7강

침례

Baptism

1. 침례를 행하는 근거
2. 침례의 방법 또는 동작
   A. 성경의 분명한 진술들
      (1)물
      (2)많은 물
      (3)물로 나아감
      (4)물 속으로 들어감
      (5)물에서 나옴
   B. 침례의 상징
      (1)침례는 장례와 부활의 상징이다.
      (2)침례는 탄생의 상징이다.
   C. 헬라어 어휘의 의미

3. 침례를 받는 사람
   A.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어야 한다.
   B. 신자일 뿐만 아니라 회개한 신자이어야 한다.
   C.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에서는 침례를 받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에게 공개적인 신앙고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침례를 받는 적절한 목적
   A. 구원받기 위하여

B. 죄 사함을 위하여
C. 죄를 씻기 위하여
D.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

예수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마 16:26). 사람의 영혼구원과 관련된 주제는 중요한 주제이며, 신중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예수께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 16:16)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런 주제이다.

예수는 나사렛을 도보로 출발하여 100~115킬로미터나 되는 먼 길을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만큼 침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선례를 남기셨다. 사도행전의 8개의 분명한 개종의 실례들에서, 침례는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다. 틀림없이 주님과 사도들은 침례가 순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었다. 우리도 침례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본 장(章)의 목적은 침례와 관련된 신약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묻고 답을 얻고자 한다. (1)누가 침례의 행위를 명령했는가? (2)침례의 방법과 동작은 무엇인가? (3)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4)침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1. 침례를 행하는 근거

어떤 행동이나 교리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권위의 원천)에 의한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대위임을 주셨다. 그분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또는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마 28:19,20)고 말씀하셨다. 그 명령은 주 예수께로부터 왔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했다.

"~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의 권위로"를 언제나 뜻한다. 경찰

이 "법의 이름으로" 어떤 범인을 체포할 때, 그는 "법의 권위로" 체포함을 뜻한다. 침례의 행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주 예수와 성령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았다. 이것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였다. 작금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예수께 위임하셨기 때문에(마 28:18) 매번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곧 세 분 모두의 권위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침례의 방법 또는 동작

현 시대에서 침례의 적절한 형식이나 동작에 관한 상당한 의논이 있어왔다. 육체적으로 말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언제 사람은 침례는 받는가? 이런 질문들은 신약성경에서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침례의 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계통의 증거를 사용할 것이다.

A. 성경의 분명한 진술들

성경은 보통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쓰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쉬운 말로 기록되어 있다. 침례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성경은 침례의 행위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고 가르친다.

(1)물(행 10:46-47).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누가 능히 이들에게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마태복음 3장 13절은 예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은 침례의 행위에 필수적이다.

(2)많은 물(요 3:23).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이것은 요한이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교하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침례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3)물로 나아감. 신약성경에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물로 나아갔다. 결코 침례를 받을 사람에게로 가져간 물을 언급하지 않는다. 요한의 침례에 관해서 기록되기를,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마 3:5,6: cf. 행 8:36).

(4)물 속으로 들어감. 성경은 사람들이 물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갔다고 가르친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성경은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침례를 받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이 둘 다 물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행동이었다.

(5)물에서 나옴. 마가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고 이야기한다. 누가는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둘이(빌립과 내시)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우리는 신약성경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침례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행동이고, 침례를 받을 사람은 물로 나아갔으며, 침례를 베푸는 자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고, 침례 후에는 물에서 나왔다. 만약에 침례의 행위가 침례를 받는 자의 머리 위에 떨어뜨려지는 단지 몇 방울의 물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상과 같은 모든 요구들은 쓸모없을 것이다. 그러나 침례의 행위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신약성경의 침례로써 물에서의 침수를 지시하고 있다.

B. 침례의 상징

사람은 육체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육체적인 행위들이나 제도들을 주셨다. 침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침례는 단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는 행위이다.

(1)침례는 장례와 부활의 상징이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큰 의미를 읽는다.

침례는 실제로 두 가지의 중요한 행위를 묘사하는 일종의 드라마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 6:3-4)고 하였다. 사람의 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 장례 그리고 부활은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침례의 행위를 주셨다. 사람이 침례의 행위를 볼 때마다 그는 우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신 것과, 사흘째 되던 날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항구적으로 기억나게 한다.

침례에서 보는 두 번째 상징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침례라는 수중무덤에 장사되는 개개인의 상징이다. 죄로 물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묻히게 되고 회개한 신자로 거듭나게 된다. 침례는 죄로 물든 옛사람의 장례식이다 -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분께 편입되고, 그분과 연합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새롭게" 또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된다.

침례 말고는 어떤 동작도 이런 모든 풍부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지니지 못한다. 침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한다. 침례를 침수로부터 변질시키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서 이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이 받아 마땅한 영광을 빼앗는 것이다.

맥가비(J. W. McGarvey)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 내가 팔레스타인에 있으면서 만약에 틀림없이 요셉의 바로 그 무덤을 발견하였고, 그곳에 주께서 장사되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날 아침까지 그렇게 누워 계신 곳을 알았다면, 나는 내가 본 모든 것 보다 그 광경을 소중히 여겼을 것이다. 나는 기꺼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동일한 바위 바닥에 쭉 펴고 누워서 몇몇 친구들에게 돌을 굴려 입구를 막도록 시켰을 것이고, 나의 구세주의 장례를 상상으로나마 의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침례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허락 받는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수중무덤에 장사되어 물로 머리 위를 덮게 한다. 비록 우리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종의 강한 팔에 의해서 그 차가운 무덤 밖으로 들어 올려지고, 그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새로운 삶의 행보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의 행보를 시작하게 된다(Cowden - *Christian Worship*, pp. 220-221).

(2)침례는 탄생의 상징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가르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침례의 행위는 이 의미를 사실적으로 전해 준다. 바울은 침례를 "중생의 씻음" 또는 "신생의 씻음(목욕)"이라고 말한다(딛 3:5).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나거나 잉태되고 물에서 태어난다. 침례의 행위에서 이런 탄생의 상징은 아주 분명하다.

C. 헬라어 어휘의 의미

신약의 원어인 그리스어는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다. 어휘는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침례로 번역된 어휘의 경우에서 사실이다. 이 어휘는 그리스어로 "밥티조"(baptizo)이다. 이것은 "담그다, 침수하다, 또는 뛰어들다"를 의미한다. 진지한 학자라면, 누구도 이들 의미들을 부인하지 않는다.

만일 예수께서 붓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다면, "엑케오"(ekcheo)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것은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께서 뿌리다를 말씀하고 싶었다면, "란티조"(rantizo)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것은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는 침수를 명령하셨던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분과 사도들은 예외 없이 침수를 의미하는 "밥티조"(baptizo)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이제가지의 연구에서 우리는, 침례의 행위와 관련해서, 성경의 분명한 진술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던 행위와 헬라 어휘에서 구체화된 상징 및 모든 것이 침례가 침수세례임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3. 침례를 받는 사람

생각해봐야 할 다음 문제는 침례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모든 사람이 침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침례의 행위에 선행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A.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어야 한다.

예수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 16:16)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우리는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라는 말씀을 읽는다. 너무 어려서 믿지 못하거나 믿을 수 없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라는 어떠한 명령도 없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침례 받는 자들은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대위임에서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셨다. 신약성경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B. 신자일 뿐만 아니라 회개한 신자이어야 한다.

침례 받기 전에 또한 회개가 있어야한다. 베드로는 오순절 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믿음으로 묻는 3,000명의 사

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행 2:38)고 하였다. 죄를 범하지 않아 회개할 것이 없는 자는 침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침례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6장은 침례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을 물에다 장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성서적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기 전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침례로 자신의 주와 함께 장사되어지기 전에 죄에 대하여 죽었음이 틀림없다. 침례를 받을 사람은 모든 그의 죄들을 회개했음이 틀림없다.

C.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에서는 침례를 받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인 신앙고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사도행전 8장 37절에 있는 내시의 경우에서 보이고 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을 때 그도 이것을 의미하지 않았나 싶다.

신약성경은 침례 받는 자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회개한 신자이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4. 침례를 받는 적절한 목적

이어지는 논리적 질문은 사람이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이다. 그것이 신자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침례에 어떤 목적을 부여하셨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파들마다 침례의 목적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교파는 침례가 사람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사람이 구원을 받은 후에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바꿔 말해서, 구원받기

전에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극도의 아이러니라고 말한다. 또 다른 교파는 적합한 사람에 의해서 베풀어진다면, 침례만으로도 개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예수와 사도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침례를 명령하신 것이다.

A. 구원받기 위하여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베드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홍수기간에 구원을 받았는가를 말하면서 이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벧전 3:21, KJ)고 한다.

B. 죄 사함을 위하여

오순절 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대답하였다.

베드로는 사도였다. 이 말씀을 하기 불과 얼마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어 그를 인도하게 하셨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그가 영감 받은 사도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조건들을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는 또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의 베드로의 진술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직접 내려온 것이다. 베드로가 믿음과 회개와 결합된 침례는 죄 사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은 그것을 - 감히 - 의심할 수 없다.

C.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울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바울이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 예수는 대답하시기를,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행 22:10)고 하셨다.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에게 말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행 22:16). 바울은 도상에서 예수를 뵙고 그분을 믿었다. 그는 3일 동안 회개하는 기도를 했지만, 그의 죄는 여전히 그와 함께 남아 있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지적해 주었다. 그것은 침례였다. 침례 단독으로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와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과 죄에 대한 회개가 선행됐을 때, 침례는 회개한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 확보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D.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롬 6:3)고 말했다. 그는 또 갈라디아인들에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갈 3:26-27)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진술이다. 신약성경은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롬 3:24), 그리스도 안에 정죄가 없다는 것(롬 8:1),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다는 것(빌 2:1)을 가르친다. 성경은 또한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며(고전 15:22),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고 가르

친다. 이런 모든 축복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분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구원이 침례의 행위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온다는 것이다. 또 분명한 것은 침례만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죄를 회개한다면, 그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부르스(F. F. Bruce) 교수는 말한다. "침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란 개념은 신약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질문들-침례

성구 골라 넣기

_____1.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_____2.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장 걸어 나오셨다."

_____3.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_____4. "침례를 통해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_____5.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_____6.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_____7.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_____8. "일어나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_____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a. 벧전 3:21	d. 막 16:16	g. 행 22:16
b. 롬 6:4	e. 행 18:8	h. 행 2:38

c. 행 8:39 f. 마 3:16 I. 마 28:19

완성하기

1. 침례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나 묘사인가?

_____

_____

2. 왜 유아는 침례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는가?

_____

_____

3.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네 가지의 축복을 쓰시오.

a._____

b._____

c._____

d._____

제8강.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

1. 제정된 주님의 만찬
   A. 때
   B. 사용된 재료들
      1) 떡
      2) 포도열매

2. 명칭들
   A. 떡을 뗌
   B. 주님의 식탁
   C. 주님의 만찬
   D. 교제

3. 참여할 때
   A. 분명한 성경적 실례
      1) 정해진 모임
      2) 정해진 목적
   B. 함축적으로 가르쳐진 매주 성만찬
   C. 형식의 논란
   D. 교부들의 증언

4. 주님의 만찬의 중요성
   A.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기념

B. 선포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 기념비가 높이 세워져 있고, 링컨 대통령 기념동상도 있다.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국군묘지에는 무명용사들의 추모비가 있다. 복무 중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무명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이 기념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인공들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만들어진 것들이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들을 기념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기념비들은 결국 파손되거나 사라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을 기념물에 남기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분은 지구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을 그런 기념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만찬이다.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울 때에 귀하고 값비싼 금속이나 돌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예수는 그분의 기념을 위한 재료들을 아주 평범한 것들로 선택하셨다. 그것들은 빵(bread)과 포도주스(grape juice)였다. 밀과 포도는 세계의 거의 모든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들이다. 따라서 예수의 기념물은 세계 도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찾아 낼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재료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파손되기 쉽고 상하기 쉬운 재료들을 선택하셨다. 빵은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말라버린다. 포도주스도 공기 중에 방치하면 시어지거나 상해버린다. 이것은 예수께서 만들어진 물질을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기념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의 가슴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된 것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기념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1. 제정된 주님의 만찬

A. 때

예수께서 주님의 만찬을 제정키로 작정하신 때는 매년 열리는 유

대인의 유월절 축제 때였다. 예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유월절을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싶어 하셨다(눅 22:15-16).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때에 예법에 따라 네 차례(four cups) 포도주(wine)를 마셨다. 이들 가운데서 다음의 잔, 추측컨대, 세 번째 잔을 마실 차례에 예수께서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주셨을 것이다(비교: 눅 22:17; 고전 10:1).

정교한 유월절 만찬 예법에 비하면 새로운 제도는 매우 간결하였다. 예수는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고 부탁하셨다. 그들이 떡을 다 먹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포도주(the fruit of the vine)가 담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새)언약의 피니라"(마 26:27-28)고 말씀하셨다.

B. 사용된 재료들

1) 떡(빵)

예수께서 성만찬 제정 때에 사용하신 떡은 추측컨대 유월절 축제의 무교병이었을 것이다.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날에 유대인들은 집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한다. 칠일동안 그들은 무교병만 먹는다(신 16:3-4).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급을 탈출할 때에 급하게 나왔음을 상기하기 위함이었다(출 12:39). 이날 예수께서 누룩으로 부풀린 떡(빵)을 드셨다는 어떠한 단서도 없다. 누룩이 죄악을 나타낸다는 개념은 무교병을 옹호하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이다(비교: 고전 5:6-8).

2) 포도열매

주님의 만찬의 두 번째 부분으로 '잔' 또는 '포도열매'가 언급되고 있다(막 14:23,25; 마 26:27,29). '포도열매'는 포도주스를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스를 '포도의 피'(포도즙)로 언급하셨다(신 32:14). 예수께서 '언약의 피' 즉 우리 주님의 피를 묘사하기 위하여 '포도의

피'(포도즙)을 택하셨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잔이 발효된 포도주를 담고 있었는지, 발효되지 아니한 포도주스를 담고 있었는지는 토론의 대상이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가을 추수 이후로 포도주스를 신선하게 보관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발효된 포도주라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고대인들이 포도주스를 일 년 내내 발효시키지 않은 채로 잘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발효되지 아니한 포도주스라고 주장한다. 예수께서는 발효된 포도주를 쓸 것인지, 또는 발효되지 아니한 포도주스를 쓸 것인지를 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쪽을 사용하든지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보관방법들이 다양함으로 발효되지 아니한 포도주스가 주님의 만찬의 전체적인 의미에 보다 더 적합하다고 보아진다. <이 주제의 찬반논의를 알아보려면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시오: James Van Buren, "The Lord's Supper," *Christian Standard*, May 3, 1953; Donald Nash, "The Beverage of Grape Juice," *Christian Standard*, June 13, 1953.>

2. 명칭들

A. 떡을 뗌(Breaking of Bread)

기독교의 성만찬과 관련해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떡을 뗌'(빵을 쪼갬)이다. 사도행전 20장 7절은 제자들이 "떡을 떼려 하여"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고 적고 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적고 있다. 동일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주님의 만찬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제정사를 주셨던 밤에 친히 보여주신 주님의 행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마태, 마가, 누가는 물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고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다. 다음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

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의미와 그림을 분명하게 그릴 수 있었을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기 위하여 떡을 떼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신성했겠는가?

B. 주님의 식탁(Table of the Lord)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전 10:21)고 상기시켰다. '주의 상'이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속한 식탁을 생각하게 한다. 그분이 그것을 처음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한 그분은 모든 식탁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마 18:20)는 귀중한 약속을 하셨다. 이 약속은 교회의 모든 모임에 해당되며, 식탁이 크고 많아도 마찬가지이다.

이 숭고한 진리는 오늘날에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 교회는 이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였다고 한다. 그 교회는 성만찬상과 강대상사이를 충분히 벌려놓고 그 사이에 한 개의 의자를 더 놓았다고 한다. 장로들은 성만찬 집례시에 성만찬상 양끝에 놓인 의자들에 평상시처럼 앉고, 성만찬상 앞 가운데에 놓인 의자는 언제나 비어두었다고 한다. 이것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만찬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암시였던 것이다.

C. 주님의 만찬(The Lord's Supper)

'주님의 만찬'은 아마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 가운데 가장 친밀감을 주는 말일 것이다. 그분이 그것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으로 불린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초대하신다.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식탁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초대는 거절을 당하는 게 된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참석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영적인 음식의 원천이 되신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초청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눅 22:19). 하나님의 자녀를 이 식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다. 그것은 참으로 주님의 만찬이다.

만찬이란 호칭은, 의심할 바 없이, 예수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날 잡수신 유월절 식사가 바로 저녁식사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신약성경에서 그것이 지켜진 분명한 실례는 저녁이었다(행 20:7).

D. 교제(The Communion)

교제라는 용어는 오늘날 종종 주님의 만찬에 적용된다. 신약성경에서 교제라는 단어의 사용은 명칭보다는 장소의 묘사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고전 10:16)고 상기시켰다. 교제라는 단어는 나눔과 참여를 의미한다. 바울은 우리가 잔을 마시거나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또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다. 그것은 그 단어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바 교제요 나눔인 것이다.

3. 참여할 때

예수께서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준수 시간이나 빈도를 지정해 주시지는 않으셨다. 주께서는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도록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남겨두셨다(요 16:12-13). 그분은 단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만 말씀하셨다. 오순절 날에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사도들은 그분의 충고를 조심스럽게 따랐다. 누가는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행 2:42)고 적고 있다. 이 말씀은 확실하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였음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한동안은 매일 주님의 만찬을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도행전 2장 46-47절에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떡을 떼며"와 "음식을 먹고"라는 두 가지 표현은 각기 다른 식음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떡을 떼며"라는 표현은 특별히 주님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주님의 만찬을 지키는 빈도에 대한 첫 번째의 분명한 증거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발견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는 말씀에서 매주일 성만찬예배가 초대교회의 관례였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한다.

A. 분명한 성경적 실례

드로아에서 있었던 모임에 관계된 모든 사실들은 그것이 정해진 목적을 위한 정해진 모임이었음을 증명한다.

1) 정해진 모임

"그 주간의 첫날에(On the first day of the week)"에서 정관사 'the'의 용법은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간 첫날에 모이는 것에 익숙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빌립보를 떠나 월요일에 이곳에 도착하였다. 왜냐하면, 누가는 드로아에서 7일간(행 20:6)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중이었다(행 20:16). 이것은 바울이 월요일 아침 일찍 드로아를 떠난 사실에 의해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 주간 첫날에 교회와의 만남을 위해 바울은 7일간을 머물렀다. 이것은 주간 첫날의 예배가 드로아 교회의 확정된 관습이었음을 나타낸다. 이것이 드로아에서 사실이었다면, 틀림없이 사도들의 인도아래에서 설립된 다른 교회들에서도 사실이었을 것이다.

2) 정해진 목적

누가는 그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분명하게 설명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행 20:7). 드로아 교회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떡을 떼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모이는 일에 익숙해 있었다. 필자는, 바울이 그 날 드로아에 머물렀기 때문에 교회가 기꺼이 바울의 강론을 청취했지만, 이것이 그들이 모인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고 확신한다. 이 구절을 매주 예배를 입증하고 매주 성만찬을 부인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모순에 빠진다. 이 구절은 정말 매주 예배의 실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도들이 매주 떡을 뗀 실례를 확립시켜준다. 한 가지를 반박하려는 행위는 결국 두 가지를 다 반박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B. 함축된 의미로 본 매주 성만찬(Weekly communion taught by implication)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주님의 식탁을 둘러싼 남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 훈계하고 있다. 그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전 11:20)는 말로써 주님의 식탁에 대한 그들의 남용을 책망하고 있다. 그들은 주님의 식탁에서 보인 행동으로 인하여 수용할만한 바른 태도로 진실하게 만찬을 먹지 못하였다. 이 구절은 그들이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인 주된 목적 즉 주님의 만찬을 먹기 위한 목적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선수들이 구장에 도착하였으나 비 때문에 시합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모임의 목적이 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것이다. 이와 똑같은 사실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보인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실로 매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발견된다. 그 구절은 고린도 교회가 모이는 횟수만큼 자주 즉 매주일 그들이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였음을 의미한다.

C. 모형론으로 본 매주 성만찬(Argument from type)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청사진을 주셨을 때, 그분은 단지 광야생활 동안에만 예배할 성막을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담아 주셨다. 그 성막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스라엘의 준비를 위해서 주신 일종의 교훈의 도구였다. 대체로 성막의 뜰은 세상의 모형으로, 성소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으로, 지성소는 천국의 모형으로 설명되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성소에는 세 개의 기구가 있었다. 성소를 비추는 금등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형이었다. 말씀은 사람의 길을 비춰주고 안내해준다(시 119:105,130). 향기롭게 타고 있는 분향단은 하늘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적절하게 묘사한다(계 5:8).

또 다른 기구는 진설병상이었다. 제사장들은 매주 그 위에다가 12개의 진설병을 두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것들은 일주일 동안 상위에 남아 있었다. 다음 주에 새 떡이 상위에 진설되면 제사장들은 물려낸 떡을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먹었다. '진설병'은 문자적으로는 '현존의 떡'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축복과 섭리적인 보호를 생각나게 한다. 이것은 확실히 오늘날의 주님의 만찬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떡과 잔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 제사장들이 충실하게 일주일에 한번 먹었다는 사실은 매주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지지해준다.

D. 교부들의 증언

교부(Apostolic Fathers)라는 용어는 사도들을 바로 뒤이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한다. 이들의 저술들이 영감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실로 말하자면 사도시대 직후에 행하여진 교회와 예배에 관한 정황들을 제공해준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순교자 저스틴이다. 그는 대략 주후 150년경에 변증서를 저술하였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의 제자였다. 사도 요한과 그토록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들

의 가르침이나 전통과 일치하는 가르침들을 그의 글에서 기대할 수가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기 시대의 예배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 그리고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는 도시나 시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서 사도들의 회상록들이나 선지자들의 글들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읽습니다. 읽는 사람이 낭독을 마치면, 집례자는 설교를 통해서 훈계를 하며, 이들 선행들을 본받도록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함께 일어나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 떡과 포도주와 물을 가져오고, 집례자는 같은 방법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성찬의 분배와 나눔은 축성된 봉헌물을 각자에게 줌으로 이루어지고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집사들을 통하여 보내줍니다. (A. Cleveland Moxe, *The Apostolic Fathers with Justin Martyr and Irenaeus*, "Weekly Worship of the Christians," Chapter LXII, pages 185-186)

다른 교부들의 글이 인용될 수도 있으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초대교회가 실제로 주님의 만찬을 매주 먹었으며, 처음 2세기 동안 이 관습이 지속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로버트 밀리건은 "처음 2세기 동안은 매주 성만찬의 관습이 세계 모든 교회들에서 시행되었고, 그것은 7세기까지 그리스정교회에서 계속되었다. 그것을 연속으로 3주간 거른 자는 파문되었다"(Robert Milligan, *The Scheme of Redemption*, p. 440)라고 말한다.

4. 주님의 만찬의 중요성

A.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기념

주님의 만찬은 매주 거행하는 기념 식탁이다. 기념은 적어도 세 가지로 기능을 한다. 이 기능들은 주님의 만찬에서 훌륭히 이루어진다.

1) 그것은 주님을 위한 어떤 갸륵하고도 사랑스러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준다. 주님의 만찬이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 예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셨다.

2) 자주 거행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또한 영혼의 시계처럼 성도들을 십자가 아래로 모이게 한다.

3) 그 상징적인 중요성에 의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전 15:3)는 바로 그 기독교의 중요한 사실을 기억나게 한다.

알렉산더 캠벨은 주님의 만찬의 기념적인 측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주님의 떡(빵)과 잔 위에는 '너희가 이것을 볼 때, 나를 기억하라'는, 눈에다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제자의 마음에다 말하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다. 참으로 주님은, 각각의 제자들이 그들의 손에 그 상징들을 받아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깨어진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다. (*Christian System*, 1835, pp. 265-291, s.v. "Breaking the Loaf," Proposition 6)

B. 선포

모든 주님의 날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그들은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1) 첫째로 바울은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전 11:26). 예수는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눅 22:20)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기념이다. 주님의 만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찾은바 되었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선포한다(엡 1:7; 벧전 1:18-20).

2) 둘째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식탁에 나아올 때, 그는 주님과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 약하고 무력한 인간을 위해

서 대신 죽을 수 있도록 한 그리스도의 사랑은(롬 5:6-8)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주고 그분의 식탁에 참여토록 해주는 바로 그 사랑이다.

3)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선포한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고전 11:26)고 말한다. 주님의 식탁은 우리의 구원이 가능토록 한 갈보리를 기억하고 회상하게 한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충만하게 실현하실 그 날을 고대하게 한다. 속죄함을 받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죄에서 구속하신 그들의 주님과 함께 모일 때, 이것은 속죄계획의 장엄한 완성이 된다. 그분의 재림에 진실로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계속해서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질문들-주님의 만찬

주님의 만찬제도에 대한 다음의 네 가지 성구들을 읽고, 빈칸에 다음과 같은 성구가 발견되는 책과 장절을 적으시오(중복사용가능).

[읽을 성구: 마 26:26-29; 막 14:22-25; 눅 22:19-20; 고전 11:23-25]

_____1.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_____2.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_____3.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_____4. "다 이를 마시매."

_____5.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_____6.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토론

1. 주님의 만찬에 적용된 세 가지 명칭을 적으시오.

   a._____

   b._____

   c._____

2. 매주 성만찬이 옳은 네 가지 이유를 적으시오.

   a._____

   b._____

   c._____

   d._____

3.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만찬이 선포인가?

   _____

   _____

   _____

제9강

기도

Prayer

1. 기도의 시작
2. 기도란 무엇인가
   A. 기도 또는 간구
   B. 감사와 찬양

3.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조건들
   A. 순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기도하라.
   B.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해야 한다.
   C.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히 기도하라.
   D. 열렬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E. 기도자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F.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G. 믿음으로 기도하라.
   H. 용서의 영이 있는 기도
   I. 가식이나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

4.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
5.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다.

1. 기도의 시작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4장 26절에 있다.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보이지 않는다. 기도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에게 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행동임이 틀림없다.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질 것이다.

2. 기도란 무엇인가

A. 기도 또는 간구

간구 또는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 기도하는 마음에 있다. 기도란 항상 자신(요청)이나 타인(중보)을 위한 부족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부족감은 하나님이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결합된다(히 11:6).

예수는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마 7:7)고 말씀하셨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자녀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분께 나오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과 이 지상에 필요한 복지제공을 기쁘게 생각하신다.

B. 감사와 찬양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감사와 찬양이다. 기도가 사람의 필요를 나타낸 것처럼,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태도를 나타낸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고 하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딤전 2:1)고 쓰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한 사랑의 표시란 점에서 감사를 나타낸다.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것은 그분께 마땅하고, 틀림없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확실하도록 도울 것이다.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살전 5:18)는 말씀을 들었다.

3.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조건들

하나님의 약속들은 언제나 조건적이다. 이 원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사람이 충족시켜야만 하는 어떤 조건들을 두셨다. 그런 몇몇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A. 순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기도하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 66:1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딤전 2:8).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께는 어떤 죄도 없으시며 그분은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존전으로 나아오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참지 못하신다. 위의 구절들은 그분의 자녀들의 생활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분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곧 자녀들의 요구를 호의적으로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 즉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요일 1:9; 비교: 행 8:22). 그분은 여기에서 생활 속의 죄를 회개치 않으면서 어떤 축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사 59:1-2).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보장 중의 한 가지는 진실한 용서의 간구로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께 항상 기쁨이 된다.

B.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해야 한다.

요한은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일 3:22).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잠언 28장 9절은 말한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시다. 그분은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부모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느끼시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축복과 이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진실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신해야만 한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소경은 이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C.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히 기도하라.

예수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진실로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기도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항상 첫째가 되어야 한다. 요한은 말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요일 5:14).

아주 지혜로우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무엇이 우리를 위한 최선인지를 아신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롬 8:26)는 점을 인정하였다. 우리는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항상 알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지 어떤지, 그분의 나라에 최선인지 어떤지, 이런 축복을 받고 싶어해야 하는지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물어보아야만 한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은 무엇이 자신을 위해서 최선인지를 항상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인간은 푸주용 칼을 구하면서도 그것이 그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지혜로운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항상 주시지는 않는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지식과 이해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D. 열렬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6). 의인의 열렬한 간구는 매우 강력하다. 야고보는 17절에서 비가 오지 않도록 했던 엘리야의 열렬한 기도를 우리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이 요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다.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것이다. 틀림없이 냉담하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 그것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 편에서의 신실치 못함과 관심의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열렬함과 함께 사람은 또한 기도에 있어서 인내심을 가져야만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말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엡 6:19). 예수는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한

다"(눅 18:1).

목사님들이 어려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다. 어떻게 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를 놓고 의논하였다(살전 5:17). 많은 제안들이 나왔고, 나중에는 참석자들 가운데 한 분이 그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도록 지명되었다. 그 보고서는 다음 모임에서 발표될 것이었다.

그 때 한 천진한 하녀가 그 의논에 끼어들었다. "저런!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한 달 내내 걸리겠군요. 아! 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쉽고 가장 좋은 구절인데요."

나이 드신 목사 한 분이 말했다. "자자, 메리, 네가 알고 있는 게 뭐지? 너는 항상 기도할 수 있니?"

"아, 예, 목사님!" "뭐라고? 할 일이 아주 많을 텐데?" "예, 목사님, 할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자, 메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의 말을 믿지 않을 텐데...."

하녀가 말했다. "예, 목사님. 제가 아침에 처음 눈을 뜰 때, 저는 '주여, 저의 이해의 눈을 뜨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옷을 입는 동안에는 예절바르게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세수하는 동안에는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요. 근무를 시작할 때는 오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조반을 준비하거나 먹는 동안에는 생명의 떡과 순전한 말씀의 젖으로 먹여달라고 기도해요. 집안을 청소할 때는 내 마음의 모든 불순함이 깨끗하게 청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항상 어린아이 같은 진실한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타 등등 하루 종일 그래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목사는 무릎을 치면서 말했다. "바로 그거야. 그것으로 충분해! 이런 일들은 종종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곤 하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야. 메리, 가도 좋아요." 목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런 교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Tract, "Pray Without Ceasing," (Scottsdale, PA: Herald Press)>

E. 기도자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기도가 이기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야고보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상기시켰다. "구하여

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약 4:3).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첫째로 두어야 한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빛으로 비추어지고 측량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일군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 받으면 내가 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축복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망을 위하여 찾아갈 수 있는 미화된 산타클로스로 생각하기가 아주 쉽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사실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복지와 그분의 나라를 가장 먼저 마음에 두고 계심에 틀림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이기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종종 파멸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지혜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만한 것들을 택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F.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이 기독교시대에 있어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3-14). 그분은 또 다시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셨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4).

사도들은 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줄을 몰랐으나 이제는 그렇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1)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 10:19-20). 히브리서 9장 8절은 우리에게 성소나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길은 성막이 있던 때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는 아직 열려있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새롭고 직접적인 교제를 열어놓으셨다(히 9:11-12).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기도로써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2)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전 2:5). 중보자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신다. 그분을 통하여 사람들은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하늘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사이의 양방향 채널이시다.

3)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우리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말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면,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의미도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 위에 높임을 받으셨다(빌 2:9).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히 4:14-16).

4)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기 때문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설만큼 깨끗하게 되었고 가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계 1:5; 히 9:14).

결국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를 통해서만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G. 믿음으로 기도하라.

예수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 1:6-7). 히브리서 11장 6절은 무조건적인 믿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며, 그분은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에게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며, 그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직접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는 때조차도 그분은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그분은 그 기도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분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들으시고서 우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는 의미에서 볼 때, 그분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명심해야만 하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믿으면서 어떤 것에 대해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거절처럼 보이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필요로 하고 바랐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음의 시는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 성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나 오히려 약해져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고,
>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으나 오히려 허약해져 더 좋은 일들을 하였고,
>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를 달라고 기도했으나 오히려 가난해져 지혜롭게 되었고,
> 칭찬들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나 오히려 약해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
>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으나 오히려 인생을 얻어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게 되었네.
> 요구했던 아무 것도 받지 못했지만 소망했던 모든 것을 받았네.
> 내 뜻과 다르게 무언의 기도들이 응답되었네.
> 가장 풍성하게 복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되었네. (저자미상)

H. 용서의 영이 있는 기도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였다. 이것은 우리가 친구를 용서하는 똑같은 정도까지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향한 하늘의 문을 닫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완전한

시간낭비이다. 사람은 자기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용서를 해야만 한다.

I. 가식이나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

위선 죄나 가식 죄보다 하나님께서 더 혐오하시는 죄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계급이나 신분을 막론하고 예수는 당대의 위선자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분의 마지막 호소에서 그분은 일곱 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통렬하게 비난하셨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그 누가 잊을 수 있겠는가?

진실하지 않고 가식적인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증하다. 예수는 누가복음 18장 9-14절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이 점을 보여주셨다. 겸손한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 교만한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위선 죄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은 웅변이나 능변에 속지 않으신다. 그분은 오직 진실에 의해서만 감동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진실해야만 한다.

믿음으로 드려진 진실한 기도는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기도들을 제거한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마 6:7). 이것은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하면 안 된다거나 때때로 오랫동안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종종 기도하시느라고 밤을 지새우기도 하셨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시곤 하셨다(비교: 눅 9:28; 막 1:35). 그러나 예수는 참으로 쓸데없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마치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분이시거나 자녀들의 기도를 듣도록 강요당해야만 하는 분인 것처럼 말이다.

4.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위대한 축복들 중에 한 가지는 기도할 때의 성령의 도우심이다. 바울은 말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자신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인지를 항상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한계가 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소망을 어떻게 말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가를 항상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를 도우시도록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보좌에다 정확하게 올려드린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모두 기도에 관계하신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하여진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며 또한 항상 사용해야만 한다.

5.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은 성경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모세는 기도했으며 그의 기도는 한 민족을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구원하였다(출 32:14). 여호수아는 기도했으며,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그의 적들은 하늘에서 쏟아진 우박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다(수 10:10-14). 한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삼상 1:9-20).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 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벧전 3:12).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

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비교: 마 7:7; 눅 11:9-10).

질문들-기도

진위(眞僞)-OX문제

_____1. 인간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_____2.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_____3.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우신다.

_____4.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기도라도 듣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_____5.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서도 여전히 기도한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빈칸 채우기

1. 기도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부분들로 구성된다.
   _____와
   _____.
2.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기록하라.
   a._____
   b._____
   c._____
3.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를 두 가지만 기록하라.
   a._____
   b._____

4. 기도란 항상 _____을 위한 부족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부족감은 하나님이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_____믿음과 결합된다(히 11:6).

5.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롬 8:26)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알지는 못하는 것 세 가지를 기록하라.

a._____

b._____

c._____

제10강

드림

Giving

1.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2. 모든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이다.
3. 하나님의 주심의 실례
   A. 그분의 아들
   B. 영생
   C. 죄로부터의 구원
   D. 지혜

4. 구약에서의 바침
   A. 개인적인 바침
      (1)가인과 아벨의 바침
      (2)노아
      (3)아브라함
      (4)야곱
   B. 모세의 율법 하에서의 바침
      (1)명령된 첫 번째 십일조
      (2)두 번째 십일조
      (3)제3년째의 십일조

5. 십일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들

앞에서 우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과 주의 만찬과 기

도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계속해서 바침의 행위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청지기 정신"이라는 용어는 물질의 바침은 물론이고, 시간의 바침, 재능의 바침 등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쓰인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돈의 바침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지를 알아보는데 국한될 것이다. 이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많다. 우리는 기독교의 바침이 근거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바침의 실례와 드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가장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설득하면서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신 10:14). 다윗은 그와 같은 생각을 시로 표현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시 24:1). 시인은 그가 기록했듯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였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시 50:10-12).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는 성경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A. 은과 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학 2:8).

B. 강들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겔 29:9).

C. 모든 땅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 하나님은 모든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단지 사람에게 잠시 동안 거기에 사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상기시키셨다.

D. 모든 영혼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겔 18:4).

E. 우리의 몸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이런 구절들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대상 29:11).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소나 나귀보다도 더 무지하다는 말을 듣는다. 이사야는 말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사 1:3).

두 번째 기독교적 바침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2. 모든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이다.

예수는 마태복음 25장 14-30절에서 달란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비유에서 종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나타낸다. 각 사람은 얼마간의 달란트를 받았으며, 그것을 사용하여 그것을 준 왕에게 이익을 남기도록 지시 받았다.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감독하고 돌보는 사람이지만,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청지기의 주요한 자격을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돈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계는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에 비추어볼 때 분명해진다. 즉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사람의 청지기 정신이 그것이다. 사람은 아무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물질적인 축복들의 관리인일 뿐이다. 그것들은 맘대로 사용해도 되는 그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취급되어져야할 맡겨진 것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독점적으로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내킬 때 그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반대가 진리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분이 사람에게 그 일부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이해된다면, 돈과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는 전적으로 변할 것이다.

3. 하나님의 주심의 실례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딤전 6:17). 야고보도 크게 강조하여 말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약 1:17).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축복들 가운에서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A. 그분의 아들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귀한 선물을 아들의 몸의 형태로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B. 영생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돈 주고 살수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일하여 벌수도 없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겸손히 받아드릴 수 있을 뿐이다.

C. 죄로부터의 구원

바울은 에베소교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말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8-19).

D. 지혜

야고보는 말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

면 주시리라"(약 1:5).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께서 당신의 지혜를 따라 주시기를 거절하실 지도 모를 많은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해야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양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셨다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하늘의 부요함과 영광을 포기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그 같은 부요함을 얻게 되었다. 참으로 바울은 옳게 지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 5:2).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그분은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마치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계시듯이 말이다.

4. 구약에서의 바침

A. 개인적인 바침

하나님께 선물을 받거나 드리는 것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된 관행이다. 창세기 4장은 그러한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바침은 아담과 이브의 아들들에 의해서 행하여졌다.

(1)가인과 아벨의 바침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희생을 드리라고 명령하셨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은 하나님으로

부터 어떤 명령이 있었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히 11:4). "믿음으로"라는 말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땅의 소산으로 바쳤다.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떼의 첫 새끼들" 중에서 바쳤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제물이 거절된 이유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제물이 결과적으로 거절된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피의 희생을 원하셨을 경우, 가인의 것은 잘못된 형태의 제물이었다. 둘째, 인색한 제물이었을 것이다. 가인이 너무 인색해서 양을 사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이로써 두 형제사이에 분열이 야기되었고, 아벨에 대한 가인의 살인으로까지 발전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배 때에 하나님께 선물을 바치는 초기형태를 보게 된다.

(2)노아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 밖으로 나와서 행한 첫 번째 행동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취하여 그것들을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예배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기뻐하셨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3)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때에 이르러서 우리는 바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게 된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동물의 희생을 하나님께 바쳤다. 게다가 그는 십일조도 바쳤다. 창세기 14장 18-20절은 아브라함이 우연히 멜기세덱을 만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4명의 왕들에 의해서 포로가 된 롯을 구출하였다. 그 와중에서 아브라함은 상당한 노획물을 취하였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기 소유물의 십분의 일을 주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진술이 없으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행

한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십일조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셨다고 결론짓는 것이 타당하다.

(4)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또한 십일조를 바치는 자였다. 야곱이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벧엘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땅에서 하늘로 펼쳐져 있는 사다리에 관한 꿈을 꾸었다. 아침에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 28:20-22). 하나님은 야곱의 제안을 불쾌하게 생각지 않으신 것 같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생애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축복하신 것을 보아 기뻐하셨던 것처럼 보인다. 야곱 또한 분명하게 그의 맹세에 충실하게 생활하였다.

이것들은 족장시대에 개개인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실례들이다. 모세 시대로 옮겨가면서 우리는 바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들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령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B. 모세의 율법 하에서의 바침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분은 십일조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한 바침의 첫째 원리로 만드셨다. 그분은 한 번의 십일조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세 번까지도 십일조를 명령하셨다.

(1)명령된 첫 번째 십일조

레위기 27장에서 모세는 십일조 법을 주었다.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십일조를 무르려면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레 27:30-33). 우리는 십일조에 관한 다음의 지시들에 주목한다. 첫째, 그들은 매년 땅의 모든 소산의 십분의 일을 바쳐야 했다. 이것은 땅에서 자라는 곡식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 등을 포함하였다. 그것은 또한 소떼나 양떼의 십분 일도 포함하였다. 둘째, 이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레 27:3-32). 셋째, 그들은 이 십일조를 바치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양이나 가축을 십일조로 바칠 때가 되면, 그들은 그 동물들을 막대기 아래로 몰았을 것이다. 계수자는 모든 열 번째의 양이나 염소 또는 암소를 취하여 따로 구별하였다. 그들은 열 번째 동물의 앞의 것이나 뒤의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열 번째 동물과 대체하려고 했던 것 둘 다를 바쳐야만 했다. 하나님은 그 열 번째 동물에 주어진 기회들을 취하셨고, 그들이 동일하게 하도록 기대하셨다.

첫 번째 십분의 일은 레위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족속들에게서 나온 십일조는 레위인들의 기업이라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는 이러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민 18:21).

레위 족속이 다른 열한 족속으로부터 십일조를 받으면, 그들은 또 자기들이 받은 것의 십일조를 아론의 가족과 제사장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론에게 바쳐야만 했다. 그들도 역시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민 18:26-28).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의 것을 관리하시는 것을 본다. 그분은 가나안 땅을 분할하여 열한 족속들에게 주시고 생업을 잇게 하셨고, 레위 족속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도 먹고 쓸 것을 주셨다.

(2)두 번째 십일조

첫 번째 십일조가 바쳐진 다음, 신명기는 두 번째 십일조가 남아 있는 십분의 구에서 바쳐졌음을 보여준다. 이 두 번째 십일조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먹었던 신성한 식사에 사용되었다. 나중에 예루살렘은 예배처소가 되었다. 예루살렘은 성막과 나중에 성전이 건축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 십일조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여러 가지 축제들과 식사들을 준비하는데 사용되었다. 바치는 자는 이 식사를 또한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었는데, 레위인들은 기업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신명기 14장 22-27절과 12장 17-19절을 보라). 만약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멀리 살고 있어서 그의 십일조를 가지고 올 수 없다면, 그는 그 십일조를 돈으로 바꿔서 예루살렘에서 필요한 음식을 살 수가 있었다(신 14:24-25).

(3)제3년째의 십일조

신명기 14장 28-29절은 말하기를,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였다. 구약성경은 이것이 매 삼년마다의 세 번째 십일조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두 번째 십일조가 매 삼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하게 사용된 것인지를 분명히 하지는 않는다. 몇몇 고대의 학자들에 따르면, 매 삼년마다 두 번째 십일조가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주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요세푸스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는 실제로 세 번째의 십일조였다고 한다(*Antiquities*, IV, VIII).

요약하자면,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이 매년 모든 소산의 십일조를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또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에게 십일조를 바쳐서 그들이 살

아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열한 족속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종교축제들을 위해서 매년 두 번째 십일조를 바쳐야 했다. 매 삼년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를 바쳤다. 이것은 레위인들,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졌다(신 26:12-13).

5. 십일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사람들의 책임들에 비례한다. 얼른보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상당한 양을 바치도록 요구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가진 것에 축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당신께 바치라고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약 그들이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풍성하게 복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신 28:3-6)고 하셨다. 솔로몬은 당대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잠 3:9-10)고 하였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서 아마 가장 친숙한 것은 말라기 3장 10-12절일 것이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셨다.

>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너그러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때에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리하신다.

질문들-바침

토론

1. 그리스도인의 바침의 첫 번째 기본원리는 무엇인가?

   _____

   _____

2. 그리스도인의 바침의 두 번째 원리를 쓰시오.

   _____

   _____

3. 모세의 율법아래서 요구되었던 바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시오.

   _____

   _____

   _____

   _____

완성하기

1. 제물로 가인은 _____을 드렸고, 아벨은_____ _____을 드렸다.
2. 성경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네 가지를 쓰시오.

   a._____

   b._____

   c._____

   d._____

3. 멜기세덱은 _____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_____이었다.
4. 다음의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는

가?

a. 야고보서 1장 5절_____

b. 로마서 6장 23절_____

c. 모데전서 6장 17절_____

5. 이스라엘은 첫 번째 십일조를 _____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_____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6.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1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세 가지 축복들을 기록하시오.

a._____

b._____

c._____

제11강

신약성경에서의 드림

Giving in New Testament

1. 바침의 참된 본질
   A. 그것은 은사(grace)이다.
   B. 예배의 행위이다.
      1)명확한 책임성
      2)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C. 그것은 사랑의 행위이다.

2. 바침의 이유
   A.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B.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C. 미래의 신뢰성

3. 기독교인의 바침(liberality)의 기준은 무엇인가?
   A. 하나님만이 바침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B 그리스도인에게는 유대인에게서보다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

신약성경에서 바침에 관한 주제는 아주 두드러진다. 성경의 저자들은 침례나 주의 만찬 모두에 관해서 보다 돈에 관한 옳고 그릇된 사용법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다. 예수의 비유 삼분의 일이 돈에 관한 것들이다. 공관복음서의 여섯 구절들 가운데 한 구절은 돈에 관한 것이다

1. 바침의 참된 본질

많은 사람들이 바침이 참된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대부분 바쳐야할 때에 바치지를 못한다. 일단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의 충만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바치는 것은 기쁨과 축복이 된다.

A. 그것은 은사(grace)이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바울은 은사로써의 바침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웹스터 사전은 은사를, "어떤 신령한 은사나 조예(attainment)"라고 정의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은사들로써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말한다. 바울은 그와 같은 것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갈 5:22). 이러한 은사들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산출해내시는 특성들 또는 속성들이다.

은사는 명확한 영적인 삶의 특성이며 자연인에게는 본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다. 삶의 제1법칙은 "자기보존"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가족과 필요와 욕망들에 관해서 먼저 생각한다. 단지 그가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에만, 참으로 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앞에 두기 시작한다.

이렇게 된 다음에 가서야 사람은, 그가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이기적이 되는 것과 바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개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담 없이 바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돈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한다. 부담 없이 후하게 올바른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바치는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힘써야할 영적인 조예이다.

B. 예배의 행위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을 지속적으로 할부를 갚아나가듯이 지불해야할 일종의 "필요악"으로 간주한다. 한번은 어떤 설교가가 말하기를, "만일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결코 헌금을 걷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설교가는 분명히 바침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헌금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고상한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 남성들에게 매년 세 가지 중요한 축제들, 즉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참석하도록 요구하셨다. 그들이 당도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신 16:16-17)고 하셨다. 이들 축제들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었다. 그분은 그들이 받은바 축복에 비례하여 헌물을 가져오기를 기대하셨다. 이것은 하나의 예배의 행위였다.

같은 개념의 예배를 신약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누가는 초대교회의 예배를 열거하고 있다. 가르침, 주의 만찬, 기도 등과 함께 누가는 "교제"를 추가하였다. 이 똑 같은 단어가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 "기부"(contribution)로 번역되고 있다. 교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나눔"을 의미한다. 신약성경교회에서의 이러한 나눔이나 바침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되었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에 지시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매 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들이 기도와 성경공부와 주의 만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동일한 날에 그들은 그들의 헌물로 또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있었다.

그리스도인의 바침을 봉헌한 예배행위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하찮은 영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영역에로 끌어올려주는 것이다.

1)명확한 책임성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바침을 그들 그리스도인의 책임의 한 작은 부분으로 본다. 신자는 그가 바치고 싶을 때나 편리할 때에 바친다. (많은 사람들은 좀처럼 바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빈손으로 그분 앞에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동일한 책임성을 느껴야한다. 시인은 다음의 구절로써 그 사상을 표현하였다.

> "또 무슨 바침이란 말입니까?" 나는 실망하여 물었다. "제가 계속해서 바치고 헌납해야합니까?" "아, 아니야."라고 천사가 나를 응시하면서 말하였다. "주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멈출 때까지만 바치도록 해라." (저자 미상)

2)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예배행위로써의 바침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또는 어떤 다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바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개념이다. 그리스도인의 바침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이러한 목적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겠으나 예배자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주의 만찬의 떡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아야 한다. 잔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아야 한다. 헌금바구니 밑에 그리스도의 손을 그려 넣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의 헌물이 그리스도에게 바쳐진다는 생각을 갖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만일 그대가 주님의 사랑스런 표정을 본다면, 그대가 주님께 해드렸을 것으로 바치시오. 마치 주님의 손이 그 헌물을 취하신다면, 그대가 그대의 물질로 바쳤을 것으로 바치시오. (저자미상)

C. 그것은 사랑의 행위이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 능력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최우선적으로 사랑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바침은 사랑 때문에 행해져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고후 8:24)고 권면하였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증거를 좋아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요한은 말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고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주장들에 의해서보다는 헌금바구니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종종 말씀하실 수 있다.

헌금바구니가 주의 만찬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테이블에 놓여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것 같다.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인은 인간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묘사나 증거를 보게 된다. 헌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의 증거가 적어도 한 가지는 보여야만 한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인의 바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개발시키시는 은사이거나 그리스도인의 조예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행위이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우연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예배의 분명한 행위이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동기가 부여된 사랑의 행위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솟아오른 것이다. 요한은 다음의 성구에서 그 점을 분명하게 진술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2. 바침의 이유

A.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물질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는 돈이나 재물을 필요로 한다. 바울은 복음 설교에서 빌립보교회의 후한 보조를 칭찬하고 있다. 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에 헌금을 보내주었고(빌 4:15-16),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에도 그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었다(고후 11:9). 그들은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에게 생활비(gift)를 보내주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교회당을 건축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경을 출판하는 데에도 돈이 들어간다. 바침에 대한 이런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다.

B.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바침에 대한 이 목적은 최우선적인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치라고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분명한 대답은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분이 선택하시기만하면, 그분은 교회에 필요한 모든 부족들을 기적적으로 채워주실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의 자녀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할 수가 없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들과 요구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치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의 열매들을 증가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후 9:11). 바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쳤기 때문에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예수께서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마 6:21)고 말씀하신다. 한 개인은 무엇인가에 바칠 때마다 그것에 더 많은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의 돈이 그의 삶의 일부분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가 무엇인가에 그의 삶을 투자했을 때, 그 때 그는 그것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돈을 저축해둔다면, 이것이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그의 마음을 얻는 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이 원리를 예수는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지 돈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돈을 사용하여 그 사람을 얻는다. 누가복음 16장 10-12절에서 예수는 돈이 바로 사람이 영적축복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종의 시험대나 방법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구절에서 돈이나 재물은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이라는 말들로 대표되고 있다. 영적 부(富)는 "참된 것," "많은 것," "너희의 것"이란 말들로 대표되고 있다. 예수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거나 그것을 올바로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인 참된 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환원하면, 우리가 우리의 돈을 올바로 다루게 될 그 때에, 하나님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창고에 갖고 계신 더 큰 영적 부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동일한 표시로,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의 돈을 다룸에 있어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예수께서는 그가 큰 영적인 축복들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신다. 인색한 사람치고 진실로 영적인 사람을 결단코 볼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진술이다. 그의 인색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참된 의로써 가득 채우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음의 것들을 우리 안에 주입하는데 힘쓸 것을 요구하신다.

(1)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

주님은 우리가 돈은 우리의 종이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 시인은 말했다.

산허리부터 파여서
골짜기로부터 씻겨갔네,
나는 사람들의 종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인인가? (저자 미상)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선한 일을 위해서 그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의 돈은 그의 종이 된다. 돈은 그리스도인의 종일 때 수많은 방법으로 복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될 때,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예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관원이다.

(2)하나님같은 비이기심의 질을 개발하라.

아마 아무 것도 이기심이나 탐심의 것보다 더 하나님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특성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 누릴만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그분 안에 어떤 이기심의 흔적도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동일한 영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바칠 것을 요구하신다.

어느 목사가 교회의 수입이 예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인들에게 좀더 후하게 바치도록 권하는 내용의 서신을 교회 사무실에서 준비하여 발송하라는 장로들의 요청을 받았다. 교인들 가운데 한 분이 그 편지를 받고서 몹시 화가 나서 날카로운 답장을 목사에게 보냈다. 그는 이러한 말들로 그의 편지를 끝맺었다. "기독교에게 있는 모든 것은 그저 '바쳐라, 바쳐라, 바쳐라'인 것 같군요."

현명하게도 그 목사는 그 편지에 즉각 답장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심사숙고 끝에 그는 이런 말로 그 교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형제님에게,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일찍이 들어본 바가 없는 기독교에 관한 최상의 정의, 즉 '바쳐라, 바쳐라, 바쳐라'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기독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는 "사랑"과 "바침"이란 말들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성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된다.

C. 미래의 신뢰성

예수는 말씀하셨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7). 바울은 주의 말씀들에 호응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히브리서 기자 또한 우리들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고 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노래 작사가는 미래의 심판사상과 그것의 목적을 이런 구절로 표현하였다. "우리가 심판대에 나아가야할 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 거기서, 거두기 위해서 삶 속에서 우리가 뿌렸던 것과 같이, 그대가 행하는 것을 매일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대는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금 그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말씀이 여기 지상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한 결산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은 봉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다른 행위들과 더불어 우리의 바침을 조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탐심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분의 것을 도적질한 것에 대하여 그들을 비난하였다.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분은 대답하셨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말 3:8-9).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분의 것을 도적질하면, 그를 덜 기뻐하실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심각한 죄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어서 그 부유한 젊은 관원은 그 대가로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보답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물질적 축복들을 빼돌림으로써 그분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배은망덕이고 도적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올바른 태도와 동기는 물론이고 올바른 비율

로 바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다른 한편, 우리가 죽을 때, 만약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의 돈을 성실하게 사용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영적인 부요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 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3).

요한 루트릿지(John Rutledge)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옳은 것이다. "그의 돈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사람은 마치 그것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며, 그것으로 천국의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쓰도록 하는 것이다."

3. 기독교인의 바침(liberality)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침이 그리스도인의 은사이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분임을 알았으나 "얼마나 바쳐야 하는가? 무엇이 후한 바침인가?"라는 논리적인 질문이 뒤따르게 된다.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는 바침의 기준을 정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소득의 1%만을 바친 사람들이 자신들이 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20%를 바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적절한 예배를 드렸을 뿐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옳지 않다. 그것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17:6)는 고대 이스라엘과 유사한 상황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A. 하나님만이 바침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칠 수 있는 어떤 한도액이란 성경말씀에 없다. 얼마나 많이 바칠 수 있는가에 다다르게 되면, 하늘이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진정 그리스도인의 바침에 대한 최소액 또는 출발점을 지시하고 있다. 제10과에서 우리는 구약성경의 유대인

들이 주의 일을 돕기 위해서 첫 번째 십일조를 바쳤다는 것을 살펴보았다(레 27:30-32; 민 18:21-28). 여기에 더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에 두 번째 십일조를 바쳤다(신 12:17-19). 의로운 유대인들은 또한 십일조이외의 헌물들을 바쳤다(말 3:8).

B 그리스도인에게는 유대인에게서보다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후하게 바치도록(롬 12:8), "풍성하고" 기쁘게 바치도록(고후 9:6-7) 촉구하고 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0).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 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십일조로 시작해야 하며, 하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이 시키는 만큼 또 생활의 필요들이 허락하는 만큼을 초과해야 한다.

요한 알버(John G. Alber)는 이렇게 썼다.

> 십일조의 원칙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에서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위대하셨다고 말하는 한편, - 이런 점에서 복음은 퇴보하는 것처럼 들린다. - 기독교가 관대함의 미덕의 기준을 낮췄고, 유대인보다 더 큰 축복들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인은 원하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바친 것보다 세계를 위해서 덜 바치게 될 것이며, 유대인들은 사랑의 법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것보다 사랑이 없는 율법아래에서 더 많은 것을 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
> 냉혹한 의무가 복음아래서의 감사보다도 더 큰 희생을 끌어냈다는 것, 시내산이 갈보리보다도 더 강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이끄시는 때보다도 모세가 엄히 몰아 부칠 때보다도 결과가 더 좋았다는 것,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속박의 멍에"에로 되돌아 가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같은 억측은, 만약 어떤 계시가 없었다면, 이성의 등불을 세울 수 없을 것이다.
>
> <John G. Alber, *The Principle of the Tithe* (Lincoln, Nebraska: Reporter Pub. Co.), p. 23.>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더 큰 계약을 맺고 있다(히 8:6). 그는 계

약아래서 더 나은 약속들을 갖고 있다(히 8:6; 벧후 1:4).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하는 더 큰 위임을 갖고 있다(막 16:15-16). 필요들이 더 크다. 이들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와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이 바쳐야한다.

질문들-신약성경에서의 바침

빈칸 채우기

1. 고린도후서 9장 6-7절 - "이것이 곧 _____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_____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_____정한대로 할 것이요,_____ _____함이나 _____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_____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2. 고린도전서 16장 2절 - "_____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_____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_____하지 않게 하라."
3. 마태복음 5장 20절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_____ _____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_____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_____못하리라."

완성하기

1. 바침은 은사이다. 은사는 _____이다.
2. 그리스도인 바쳐야할 세 가지 이유를 쓰시오.
   a._____
   b._____
   c._____
3. 바침이 예배의 행위라는 진술에서 표현된 두 가지 사상은 무엇인가?
   a._____

b._____

4. 율법 아래서 유대인들이 행한 것보다도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쳐야할 이유들을 가능한 한 모두 쓰시오.

_____

_____

_____

제12강

교회의 선교

The Mission of the Church

1.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2. 선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기독교는 타고난 선교사이다.
   A.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참 종교임을 주장한다.
   B. 기독교의 인간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시다.

4. 선교의 동기
   A.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리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세상의 절실한 필요에 대한 자각.
   B. 그리스도의 명령
   C. 구원에 대한 감사

5. 누가 선교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
6. 선교의 방법
   A. 전도장소의 선택
   B. 전도와 기도
   C. 바울은 토착교회들을 설립하였다.

1.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것은 이중적이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야하며, 그들을 그분을 믿는 믿음에로 인도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들을 그리스도에로 침례를 베풀어야한다는 것이다(마 28:19). 둘째, 교회는 이들 순종하는 신자들을 그들이 그분 안에 세워지고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쳐야한다는 것이다(마 28:20). 이것이 교회가 가진 유일한 임무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적인 것이다. 그것은 잃은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계속된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세계의 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다.

2. 선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전도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선교라는 단어이다. 선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전은 선교라는 명사를 "일종의 소명, 특히 어떤 종교를 전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즉 어떤 특별한 섬김을 위해서 특정한 능력을 가진 자를 보내는 행위 또는 보냄을 받은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선교라는 용어는 신약성경에는 없다. 그것은 "내가 보낸다."는 의미의 라틴어 "Mitto"에서 왔다. 선교사란 "보냄을 받은 사람" 또는 "어떤 임무에 보내어진 자"이다. 그것은 "사도" 즉 "내가 보낸다."는 의미의 헬라어 "Apostello"와 동의어이다. "선교"라는 말은 위대한 교회의 목적, 즉 온 세계 전도에 대한 현대적인 용어이다.

3. 기독교는 타고난 선교사이다.

종종 이런 물음이 제기된다.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왜 선교사들을 보내는가? 다른 나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와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야하는 정당성이 무엇인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냥 내버려두고 그들을 이 새로운 가르침으로 방해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만약 기독교가 수많은 종교들 중의 한 종교에 불과하고, 또 만약 그리스도가 수많은 구세주들 가운데 한 구세주 일뿐이라면, 가는 것에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에게 열려있는 다른 구원의 방법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선교의 정당성은 기독교 자체의 바로 그 본성에 있다. 기독교를 선교사로 만드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다. 이것들은 기독교의 배타적 주장들과 인간관이다.

A.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참 종교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기독교로 하여금 일세기의 로마인들과 갈등을 겪게 하였으며, 오늘날의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적대감을 낳고 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제국내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한 종교로 점차 인정을 했지만,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기독교가 모든 다른 종교들을 거짓 종교로 단정하는 데에 적대감을 표시하였다.

신약성경이 그것의 메시지로 배타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호와는 한 신(神)이 아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전 8:4). 예수 그리스도는 한 구세주가 아니다. 그분은 유일한 인간들의 구세주이시다.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하였다. 이것이 기독교가 선교사인 이유이다. "만일 복음이 인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라면, 어떻게 나는 계속 침묵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구원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 나는 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빚진 자라...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롬 1:14-15)고 말한 것

처럼 느끼지 않아야 하는가?" (Harold R. Cook,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hristian Missions*, p. 23.)

B. 기독교의 인간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원이란 죄로부터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죄가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킴으로써 모든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저주와 죽음을 가져왔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롬 3:23), 누구도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로부터의 구원이 발견될 수 있다. 이 신념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집과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 죄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고난과 박해와 죽음에 직면하게 한 거역할 수 없는 힘이었다. 교회의 이 두 가지 신념들은 바로 그 기독교의 본성으로 인하여 기독교를 선교사로 만든다.

C.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시다.

선교에 대한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모범에 있다. 예수께서는 선교를 가르쳤고, 선교를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다.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요일 4:9)고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은 자"이신 선교사이셨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보냄을 받으셨다. 주님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또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 6:38-39). 그분의 목적은 오늘의 어떤 선교사의 것과도 동일하였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 2:1)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역을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구원을 가능케 하시려고 천상을 떠나 지상으로 오신 때, 시작하신 위대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4. 선교의 동기

동기란 사람을 행동하도록 촉진하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거나 강요하는 하나의 힘이다. 선교사로서 간다거나 다른 사람을 파송하는 적절한 동기는 무엇인가? 참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많은 동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만 몇 가지만 여기에 언급하고자 한다.

A.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리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세상의 절실한 필요에 대한 자각.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그가 생명수를 맛본 후에 한가하게 서서 이 물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죽어 가는 것을 볼 수 없다. 이것이 세계 전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동기들 가운데 한 가지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의 참된 의미가 분명해질 때까지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사랑의 메시지로 인하여 결코 이기적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절의 의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분의 아들을 잃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 예수는 사랑하셨고, 그들의 몸값으로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롬 5:6-8).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의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잃은 형제와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안전하게 그들의 하늘 아버지께로 되돌려질 때까지 이 탐구를 계속해야한다.

B.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는 선교를 가르치고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명령하셨다. 모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그분의 대위임을 이런 저런 모양으로 소개하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는 그것을 좀더 짧은 형태로 소개하였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누가는 그분의 위임을 다음과 같은 말로 소개하고 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눅 24:46-49).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고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들은 동일한 위임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을 읽게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그분의 명령이 큰 위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위에 전심으로 복종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서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을 찾게 될 것이다. 그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자 노력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고후 5:18-20).

신자는 단순히 그분의 존재,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된 특권임에 틀림없다. 한편 순종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심판이란 부가된 동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든지 않든지 간에" 그들의 기독교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나는 선교를 믿지 않는다"는 진술로써 쉽게 그 주제를 무시하려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결코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거나 명령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것과 관련된 일을 게을리 행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주라"는 대위임의 명령을 등한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너희는 온 천하로 가라"(막 16:15)는 예수의 말씀부분에서는 거리낌 없이 등한히 할 것이다. 침례를 명령하신 동일한 주께서 또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인간은 주의 명령의 일부만을 복종하고 나머지는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것을 행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살아온 삶을 해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이어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고후 5:11)고 말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전도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불순종에 대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는 순종치 않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자신의 느낌들을 좀더 명확하게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경외감을 회복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든지, 아니면 심판 때에 그분의 진노에 직면해야 한다.

C. 구원에 대한 감사

신문들은 의사로부터 무서운 질병을 고침 받았던 어떤 사람의 이

야기를 보도하였다. 의사에게 그의 식을 줄 모르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는 한 주요고속도에 세워진 한 커다란 광고판을 임대하였다. 그는 거기에 커다란 글씨로 의사의 이름과 그의 치유 이야기를 적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질병을 고침 받은 죄인은 우리들의 위대한 의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하는 은혜에 대해서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선교를 위한 강제적 동기이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는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롬 1:14-15)고 하였다.

5. 누가 선교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

예수는 사도들에게 대위임을 주셨다. 그러나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그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초대교회는 그것이 모든 신자의 의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였다.

빌립은 최초의 봉사자들의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전도자 빌립"(행 21:8)이라고 불린 영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다. 스데반 사후,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졌을 때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행 8:4)고 성경은 말한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행 8:1). 이 흩어진 분들은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모든 신자들은 그 말의 참된 의미에서 볼 때 전도자였다. 계시록 22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분의 마지막 대위임이 기록되어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듣는 자는 누구든지, 믿고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명수에로 부르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누가 선교사의 일을 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

이 또 공동적으로는 교회가 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든지 보내든지 신성한 사명감을 느껴야 한다. 그는 가장 먼저 자기 이웃 사람들에게로 가야한다. 또한 주께서 그를 다른 나라에 가라고 부르실 지도 모른다. 만일에 그가 외국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는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닿는 데까지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 주께서는 심판 때에 "너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너는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느냐?"고 물을 실 것이다. 개개인 신자들이 이런 개인적 책임감을 느낄 때까지는 세상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지 않을 것이다.

주여, 당신은 제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높고 거룩한 베푸심입니다.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저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당신은 하늘로부터 강한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할 천사의 무리를.
그러나 당신의 겸손한 사랑 속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영광을 주셨습니다.
저의 믿음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그 이야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의 발에 힘을 주옵소서.
저의 믿음을 신실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써 주옵소서.
<Robert Hall Glover, Quoted in *The Bible Basis of Missions*(Los Angeles, California: Bible House of Los Angeles, 1946), p. 208.>

6. 선교의 방법

선교방법들의 언급은 즉시로 사도행전을 생각나게 한다.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현존하는 선교에 관한 가장 좋은 교과서로 채우셨다. 한 저자는 사도행전을 "권위를 인정받은 교회의 선교 안내서"라고 말한다(Glover, *The Bible Basis of Missions*, p. 26).

사도행전에 있는 선교방법들에 관해서 책들이 저술되었다. 여기에

그 몇 가지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A. 전도 장소 선택

바울은 전도여행에 관한 그의 전 일정을 계획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실 여지를 남겼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전도여행에 있어서 그의 전도 장소들에는 한 가지 유형이 있다.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길들을 따라 여행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들 도로들을 따라 중요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무역, 정치, 또는 교육을 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도시들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수리아 안디옥은 대략 50만의 인구를 갖고 있었다. 안디옥은 지중해 연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고, 수리아도의 로마 장관이 주둔하는 곳이었다. 이곳은 바울이 그의 선교 노력들을 집중시키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주변 세계에 미칠 거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키프로스는 비록 작은 섬이었지만 복음화를 위한 훌륭한 출발지점을 제공하였다. 그 섬은 세 대륙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편리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에베소는 아시아도의 상업적 정치적 수도였다. 여기서 바울은 2년 3개월을 머물렀다. 바울은 전략적 중심지역들에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인근지역들을 복음화하였다.

B. 전도와 기도

바울은 사역지를 선정한 다음에는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비교: 행 14:1; 17:1-3,17; 18:5; 19:8-9). 바울은 전도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잃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고린도교인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이 전도는 믿음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필수적

이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로마서 10장 14-15절에서 그는 전도의 중요한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수단이었다.

기도는 바울에 의해서 사용된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그의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으며, 그도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확신시켰다. 그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살후 3:1), 큰 위험들로부터 건짐을 위해서(고후 1:10-11),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보내는 예물들을 받아드리도록(롬 15:30-31), 그리고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기회가 주어지도록(골 4:3) 기도를 부탁하였다. 그는 또한 그의 개종자들에게 그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켰다(빌 1:3-5).

바울은 그의 삶의 추진력으로써 개인기도생활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는 기도를 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을 위한 결과들을 틀림없이 가져다주었기 때문이었다.

C. 바울은 토착 교회들을 설립하였다.

토착적이란 교회가 자치(self-governing), 자립(self-supporting), 자전(self-propagating)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자치(self-governing)-사도행전공부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바울이 지도력개발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교회를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배운다. 그의 제1차 선교여행에서 이 점은 분명하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교회들을 세웠다. 그들이 교회들을 격려하고 강권한 후에 돌아갈 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였다"(행 14:23)고 누가는 기록한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는 에베소교회에 장로들이 있었음을 주목하게 된다(비교: 빌 1:1).

디도는 그레데 섬의 모든 도시들에서 장로들을 임명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다(딛 1:5). 이들 지역교회들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가르쳤고 감독하였다.

(2)자립(self-supporting)-자립은 바울이 시행했던 두 번째 원리였다. 자립이란 개교회가 교회 자체의 재정적 필요를 해결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들에 도움이 필요한 때에는 한 교회가 다른 자매교회를 돕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예들 들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냈다(행 11:27). 바울은 유대지방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연보를 모았다(고전 16:1-2; 롬 15: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가 그들의 통상적인 지출을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후원하도록 지시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갈 6:6).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딤전 5:17). 자립의 이 원리는 오늘날에 주의 깊게 주목받아야 한다. 선교교회의 존립을 선교사들이 후원하는 돈에 의존케 하는 것은 상당한 해악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은 선교지역 성도들에게서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기인된 영적 성장과 축복들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것은 그 교회로 하여금 개교회 사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 그 반대로, 만약 그들이 적절하게 가르침을 받고 그들 자신의 일들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배운다면, 그들은 대체로 훌륭하게 자신들의 일들을 처리해나갈 것이다. 그것은 1세기에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하였고, 20세기에도 그러해야 한다.

(3)자전(self-propagating)-이 원리는 앞서의 두 원리에 크게 의존되어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자치적이지 못하고 자립적이지 못할 때, 거의 자기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신약성경에서,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교회의 형제들에게서 드러난 대로 아주 분명하다. 바울은 말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

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살전 1:8). 대다수의 사례에서 선교지역출신의 사역자들은 외지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자기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다. 다른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이들 교회들에게 그들 주변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쳤을 때, 바울은 목회사역에 있어서 소수의 급여를 받는 사역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협력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엡 4:11-12).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또한 타당하고 필요하다.

질문들-교회의 선교

완성하기

1. 왜 기독교는 타고난 선교사인가?

_____

_____

_____

2. 바울이 교회들을 개척할 때에 어떤 형태의 도시들을 선택하였는가?

_____

_____

3. 당신에게 있어서 선교사역을 하는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인가?

_____

_____

4. 토착 교회의 세 가지 특징들을 열거하시오.

a._____

b._____

c._____

5. "대위임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다. 따라서 나는 그 위임에 책임이 없다."는 반박에 당신은 어떻게 대답을 주겠는가?

_____

_____

_____

_____

이들 어휘들을 정의하시오.

1. 선교사(Missionary):
2. 토착(Indigenous):
3. 선교(Mission):
4. 동기(Motive):
5. 위임(Commission):

제13강

주의 재림

The Coming of the Lord

1. 주의 재림의 확실성
   A. 어떤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의심한다.
   B. 주의 재림의 증거
      1)예수 자신에 의해서
      2)천사들의 증언
      3)사도들의 증언
      4)모형으로부터의 입증
      5)주의 만찬의 증언

2. 재림의 방법
   A. 볼 수 있게
   B. 구름을 타고
   C. 천사들과 함께 영광중에
   D. 물질세계의 격동 중에

3. 주의 재림의 시기
4. 주의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
   A.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B. 개인적인 거룩함
      1)진실함
      2)근신함
      3)이타성

4)참을성
5)신실함
C. 깨어있음
D. 일함

성경에서 주께서 지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분의 초림은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재림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받아드리기 위한 것일 것이다(히 7:28).

이 교리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관심이 집중된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신약성경 전체 중에 오분의 일이 주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하였다. 예수의 비유 네 개가 재림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 재림을 강조하는 한 실례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다. 바울은 주의 재림에 대한 언급으로 각 장을 결론짓고 있다(살전 1:10; 2:19; 3:13; 4:15-18; 5:23). 바울이 재림에 관하여 자주 언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이 입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썼다.

사람은 신약성경을 읽기만 하면 반드시 초대교회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교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1. 주의 재림의 확실성

A. 어떤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의심한다.

아무 것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보다 신약성경에서 더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없다. 이것은 진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친히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베드로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미리 말하였다. 사도는 말하기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벧후 3:3-4)라고 하였다.

주께서 주의 재림을 늦추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45-51절의 비유에서 악한 종은 그와 동일한 잘못된 결론을 내린 후 영원한 슬픔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재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재림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려드는 자들도 있다. 종교지도자들의 한 부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때, 즉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그분이 약속한 재림의 성취라고 믿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각 개인의 심령 속에 오실 때가 유일한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예수께서 1914년에 영적인 의미에서 오셨다고 고집한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통해서 재림하셨다고 가르친다(행 2장).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하셨다. 예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 14:23)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항상 그분의 교회와 함께 계셨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재림은 그분이 몸소 보이게 오는 것이다.

B. 주의 재림의 증거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증거는 충분하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은 말하기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심지어 주의 초림보다 앞서 있기도 하다. 구역성경에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단 7:13). 구약성경에서는 재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다소 불분명하다. 이 위대한 사건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신약성경의 몫으로 남겨졌다. 주

의 재림에 관한 첫 번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예수 자신에 의해서

예수는 공회에 말씀하셨다.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마 26:64). 이전에도 그분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 가장 사랑 받는 주의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3절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승천하신 후 여러 해 후에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이 소식을 세상에 재확인시켜 주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 성경에서 바로 그 마지막 말씀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고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2)천사들의 증언

사도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감람산에 서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의 출현으로 인하여 갑자기 그들의 생각이 세상 일로 되돌아왔다. 이 두 사람은 천사들임이 분명하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11)고 하였다. 성경말씀들은 주의 재림 때에 천사들이 주와 함께 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재림에 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들의 증거는 신뢰할만하다.

3)사도들의 증언

사도 베드로는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을 반박하면서 그것에

관하여 아주 강조하고 있다(벧후 3:1-14).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재림의 약속과 관련해서 주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10. 참고: 행 3:19-21; 벧전 1:3-13; 4:12-13; 5:4).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많은 증인들의 목소리에 자기의 것을 보태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계 1:7). 또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기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요일 2:28)고 하였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요일 3:2)는 이 놀라운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 이상으로 주의 재림의 사실을 가르치고 기뻐하였다. 주 예수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은 바울이 언제나 그의 독자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도록 했던 "복된 소망"이었다.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살전 5:1-11)고 하였고,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살전 4:13-17)고 하였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 9:27-28. 참고: 행 17:30-31; 롬 2:16; 8:16-25; 13:11; 고전 1:7; 4:5; 11:26; 15:23, 50-52; 빌 2:16; 3:20; 골 3:1-4; 살전 1:9-10; 2:19; 3:11-13; 살후 1:7-12; 2:1-10; 딤후 4:6-8; 딛 2:13; 계 6:12-17; 14:14-15; 16:15-21; 20:7-15).

4)모형으로부터의 입증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장차 신약성경에서 나타날 사건이나 제도에 대한 그림자나 희미한 영상으로 가득 채우셨다. 이러한 예시들은 모형이라고 불린다. 이런 모형들의 상당수가 성막에서 발견될 수 있다. 성막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히 4:14). 일 년에 한번 속죄일에 아론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려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곤 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백성에게 되돌아와서 시은좌 앞에서 이루어진 속죄에 의해서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확신시키고 그들을 축복하였다(참고: 민 6:24-26).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은 여기 이 땅의 시은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지 않으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다"(히 9:24). 그리스도는 죄를 없이하기 위한 희생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리셨고, 이제는 그의 소유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신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 9:28). 그리스도께서 이 모형의 첫 번째 부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두 번째 부분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

5)주의 만찬의 증언

우리는 보통 주의 만찬을 갈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십자가처럼 주의 만찬도 두 가지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그것은 갈보리와 재림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표지이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매 주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보인 갈보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묵상하는 것처럼, 그는 또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자신의 완전한 구원을 고대해야만 한다. 매주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이 주의 재림에 일주일 더 다가갔다는 것을 상기해야만 한다. 이것은 기쁨이 되어야 하며, 그들을 세상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줄

힘이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은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이 짧다는 것과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줘야 한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모든 확신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할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벧후 1:16). 그리고 그의 다음과 같은 충고를 기억하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벧전 1:13).

2. 재림의 방법

성경은 주의 재림의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 주의 재림에 관한 몇 가지 기술들이 있다.

A. 볼 수 있게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11). 사도들은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람산에 서 있었다. 그분이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을 때 그분의 발이 땅에서 들렸고, 그분은 하늘로 오르기 시작하셨다. 그분이 올리어 가실 때, 밝은 구름이 그분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였다(눅 24:50-51; 행 1:9). 사도들은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분이 떠나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이 가시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성경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한다. 계시록 1장 7절은 말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계 1:7). 사람은 그분의 오심에 관해서 추측할 필요가 없다. 예수는 그것에 관해서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27). 지상에 살아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볼 것이다.

B. 구름을 타고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시내산에 임하셨다(출 24:16). 하나님은 또한 변화산에서도 구름 가운데서 임하셨다(마 17:5).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출 13:21). 시편 104편 3절은 하나님에 관해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는 구름 가운데서 떠나셨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 어떤 이는 말하기를 밝은 뭉게구름을 하늘에서 볼 때마다, 그는 주의 얼굴을 보려고 무의식적으로 구름을 살피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고 하였다. 구름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C. 천사들과 함께 영광중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마 25:31).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은 정복하는 왕의 승리의 행진이 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살전 4:16).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은 말한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께서 초림 때에는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셨다. 그분은 세상사람 대부분이 보지 못한 가운데서 조용히 강림하셨다. 재림 때에는 왕으로 오실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 것이다. 그분이 초림 때에는 비천하게 오셨으나 재림 때에

는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 그분은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른다. 그분의 재림은 진실로 이 땅으로의 주님의 "승리의 재입성"이 될 것이다.

바울은 예수께서 "큰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한다(살전 4:16). 이것은 "호령" 또는 "소집하는 큰 외침"으로 번역된다. 이 큰 소리나 외침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모른다. 어떤 이는 그것이 예수와 함께 내려오는 하늘 무리의 큰 소리라고 생각했다. 이 성구는 또한 "천사장의 목소리"나 "천사장의 부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천사장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들의 구원자와 합류하도록 부르고 있는 것일 것이다(마 24:31). 이것은 분명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 있게 될 사람들을 말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나팔로써 예고될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전 15:52). 천사장의 소리가 살아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 나팔은 성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참고: 요 5:28-29). 그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살전 4:17).

D. 물질세계의 격동 중에

지구 자체가 그것을 만드신 분의 오심에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마 24:29-30). 로마서 8장 19-22절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새로운 자유를 즐기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이것은 틀림없이 베드로가 언급한 새 땅에서 실현되어 질 것이다(벧후 3:13).

3. 주의 재림의 시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이후로 사람들은 줄곧 주의 재림의 때를 생각해왔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자기들 생전에 오실 것을 매우 확신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살후 2-3장).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는 주의 재림의 날을 1843년으로 정하였다. 찰스 러셀(Charles T. Russell) 목사는 재림이 1914년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분명히 이 모든 날들은 잘못된 것이었다. 몇 년 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우정공사 총재의 특별보좌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하라고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그 특이한 요청에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였다. "만약에 당신이 그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말해준다면 발행에 착수하겠소." 그 사람은 전화를 끊었다.

신문들이 그 사건을 보도했을 때, 우체국은 그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신문 구독자들로부터 십여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 우표는 결코 발행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날짜들이 1961년 7월부터 2061년까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달랐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주의 재림의 확실성에 관해서 매우 분명하다. 계시되지 않은 단 한 가지는 주의 재림의 시간이다. 주께서는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막 13:32).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면 틀림없이 그 어떤 사람도 모르는 것이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행 1:7). 사람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다.

4. 주의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관점에서, 이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진실로 이 교리를 믿는다면, 그것이 그의 생활과 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의심할 것도 없이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냉담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는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경말씀은 진실로 믿어진 이 교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많은 복된 변화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가르친다. 여기에 그 복된 변화들 가운데 몇 가지가 있다.

A.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바울은 디도에게 권고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고 하였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딛 2:12-13).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벧후 3:11-12). 요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요한일서 2장 15-17절에서 말하고 있다. 요한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는" 때인 재림에 관해서 말할 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였다.

이것은 재림의 교리에 대한 논리적인 반응이다. 만약에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이 태워 없어질 것"이라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멸망에게 넘겨주신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저주아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뚜렷하게 갈라서도록 지시 받는다. 신중한 사람이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주받은 건물에 접근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향하고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멸망 받기로 예고되어졌다는 것을 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눅 17:20-37). (Fred O. Blakely, *The Apostles' Doctrine,*

Volume, I, p. 159.)

B. 개인적인 거룩함

베드로는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벧후 3:14). 요한은 동일한 원리에 따라 논하면서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2-3). 이 소망에 관한 실천적인 적용으로써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2-3).

부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모든 세속의 정욕을 거절하는 것이어야 한다.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면서 이 현세에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딛 2:12-13).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측면들을 위한 동기이다. 몇 가지 측면들은 다음과 같다.

1)진실함

바울은 빌립보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빌 1:10-11) 구하였다.

2)근신함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상기시켰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살전 5:2,6). 분명히 이런 맥락에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술 취하는 것에 반대되는 뜻으로의 근신을 의미한다. 사람이 주의 재림의 위대한 순간에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주께서도 이 무서운 죄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눅 21:34). 그분이 오실 때 그런 상태로 발견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자기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근신할 것이다.

3)이타심(친절, 인내)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빌 4:5)고 권면하였다.

4)참을성

히브리서 저자는 말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간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히 10:36-37). 이 인내는 확고부동함이며, 끝까지 참는 것이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동일한 맥락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과 박해를 참으라고 촉구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벧전 1:7).

5)신실함

주의 오심은 교회 즉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장로들에게 신실함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 5:4).

C. 깨어있음

적어도 50회 이상 신약성경은 교회에게 주의 재림에 대비하여 깨어있으라고 요구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마 24:42-4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막 13:37).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화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벧후 3:12. 비교: 눅 21:7-36; 빌 3:20-21; 고전 1:7; 살전 1:10; 살후 3:5)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깨어있음은 믿음을 가리킨다. 그는 주의 오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그는 깨어서 기다린다. 깨어있음은 주의 오심의 고대를 가리킨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시는 구세주의 재림의 "그 복스러운 소망"을 진심으로 고대할 것을 권고 받는다(딛 2:13). 이 구원의 고대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용기를 주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 알렉산더 맥클라렌(Alexander Maclaren)은 묻는다. "만약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백보좌와 하늘과 땅이 그 보좌에 앉으신 자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들 마음의 눈앞에 선하게 비치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이 동물적인 방종의 진창가운데서 뒹굴 수가 있겠는가?"(Fred O. Blakely, *The Apostles' Doctrine*, Volume, I, p. 162.) 대답은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축복과 상급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롬 12:9)는 것이다.

D. 일함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실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권하였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애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딤후 4:1-2).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를 사용하는 동기는 주께서 돌아오시면 회계를 요구하실 것이라는 것이었다. 깨어 기다리는 종들과 지혜 있는 청지기의 비유는 말한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눅 12:43). 우리가 우주의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분이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이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실 것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전에 예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대해왔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주의 재림에의 기대는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여 의롭게 살게 하고, 신실하게 깨어있게 하고, 부지런히 일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어느 황금빛 새벽녘,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어느 황금빛 새벽녘 - 모든 싸움을 이겼다.

그는 승리를 외칠 것이다 - 푸른 하늘을 가를 것이다.

어느 황금빛 새벽녘에 - 나와 그대를 위해서

질문들-주의 재림

진위(眞僞)-OX문제

_____1. 신약성경에서는 재림에 관해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_____2. 성경은 예수께서 (예상치 못한)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한다.

_____3. 그리스도께서 이번에 오실 때에 혼자서 오실 것이다.

_____4. 예수께서 오실 때에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_____5. 예수는 그분과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가 다시 오실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_____6.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날짜를 정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았다.

_____7. 예수의 재림은 영적인 오심이지,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_____8.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

_____9. 구름은 하나님의 전차라고 듣게 된다.

_____10.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완성하기

1. 주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동기 부여하는 세 가지 주요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기록하라.

a._____

b._____

c._____

2. 재림이 무슨 그리스도인의 특성들을 불어넣는가?

_____

_____

_____

3. 그리스도의 재림사건에 관한 세 가지 증거들을 열거하라.

a._____

b._____

c._____

4. 무엇이 주의 재림의 방법일 것인가?

_____

_____

_____

참·고·도·서

Bibliography

Alber, John G., *The Principles of the Tithe*, (Lincoln, Nebraska: Reporter Publishing Company).

Allen, F. G., *Old Path Pulpit.*

Allen, Roland,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London: World Dominion Press), 1930.

Allen, Roland, *The Spontaneous Expansion of the Church*,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2.

Blakely, Fred O., *The Apostles' Doctrine, Vol. I, II,* (Highland, Indiana), 1959.

Brents, T. W., *Gospel Sermons*, (Nashville: Gospel Advocate Co.)

Campbell, Alexander, *The Christian System*,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mpany).

Casselman, Arthur V., *Into All the World*, (Philadelphia: The Christian Education Press), 1943.

Cole, Glenn Gates, *Classified Bible Studies*, (Holmesville, Ohio: G. G. Cole Publisher). Out of print.

Cook, Harold R.,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hristian Missions,* (Chicago, Illinois: The Moody Bible Institute), 1954.

Davis, George T. B., *Fulfilled Prophecies that Prove the Bible*,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Million Testaments Campaign), 1931.

DeWelt, Don, *The Church in the Bible*,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Dornette, Ralph, *Bible Answers to Popular Questions.*

Fisher, George Park, *The Grounds of Theistic and Christian Belief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1.

Flynn, Leslie B., *Your God and Your Gold*,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1.

Glover, Robert Hall, *The Bible Basis of Missions*, (Los Angeles, California: Bible House of Los Angeles, California), 1946.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Hayden, W. L., *Church Polity*.

Hoven, Victor, *Bible Doctrine*, (Eugene, Oregon: Northwest Christian College).

Hunt, Julian O., *Christian Is the Name of the Church*, (Published by author).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Johnson, Ashley S., *The Life of Trust*, (Old Paths Book Club).

Lipscomb and Sewell, *Questions Answered*, (Nashville: Gospel Advocate Company).

McGarvey, J. W. *Acts of Apostles*, (Cincinnati, Ohio: Standard Publishing Co.).

Milligan, Robert, *Scheme of Redemption*, (St. Louis: Christian Board of Publication).

Murch, James DeForest, *Teach Me to Pray*, (Cincinnati, Ohio: Standard Publishing Company), 1958.

Pray Without Ceasing, (Scottsdale, Pennsylvania: Herald Press).

Scott, Walter, *The Gospel Restored*, (Rosemead, California: Old Paths Book Club).

Smith, Wilbur M., *The Supernaturalness of Christ*, (Boston, Massachusetts: W. A. Wilde Company), 1954.

Smith, Wilbur M., *Therefore Stand*, (Boston: W. A. Wilde Company), 1945.

Sweeney, Z. T. *New Testament Christianity*, Vol. I, II, III, (Columbus,

Indiana: New Testament Christianity Book Fund Incorporated), 1930.

Thomas, J. D., *Facts and Faith*, Vol, I., (Abilene, Texas: Biblical Research Press), 1965.

White, Samuel J., *The Bible Self-Explanatory*, (Published by author, Tampa, Fla.).

Winder, F. J., *That They May Be Won*, (Portland, Oregon: Willamette Printing Co,) 1936.

Zollars, Ely V., *The Great Salvation*,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역자후기

Translator's Postscript

본서는 애틀랜타 크리스천 대학에서 38년 동안 신약성경을 가르쳤던 덴버 사이즈모어 교수가 저술하고 칼리지 프레스에서 출판한 한 학기 강의를 위한 책이다. 이 책은 1970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인쇄된 이후 1991년 이미 16번 인쇄될 정도로 미국 전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읽히고 있는 책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신과 전통은 성경해석의 결과물보다는 신약성경을 기본 틀로 한 신구약 성경 66권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그대로 수용하여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리스도의 교회 교리라고 불릴만한 내용이 필요치 않으나 성경이해의 혼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만한 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늘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서와 같은 교리서의 요청이 쇄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교리서들을 읽고 사용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할 점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리서요'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성경해석의 산물들을 절대불변의 도구마로 삼지 않는 것이며, 믿음과 실천의 규범이나 친교의 시금석(잣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의 유산과 전통을 이해하고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책 속에 인용된 성구는 거의 대부분『한글개역개정판』임을 밝혀 둔다.『한글개역판』성구로써 완료했던 몇 년 전 번역을 이번에『한글개역개정판』으로 수정하였다.

2009년 4월 1일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에서 조동호